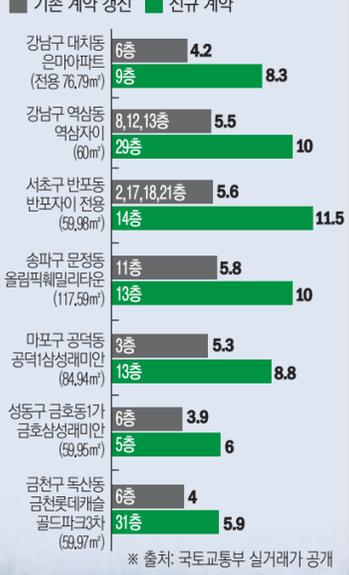


은마아파트 같은 동 '신규-갱신 전셋값' 2배로 벌어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서울 주요 단지 사례 (단위: 억 원)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76㎡형 신규 계약 보증금 8.3억... 갱신하면 4.2억
마용성·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이중가격' 현상 뚜렷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급등... 주거난 심화 우려"

서울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을 쓰는 경우의 전셋값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신규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형은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 3000만 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 전용 76.79㎡형은 지난달 16일 보증금 4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이 계약 보증금은 4억 원에서 5% (2000만 원)를 인상한 값으로 2년 전 4억

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보름 만에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 전셋값이 2배가량 차이는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가구는 3일 5억 1400만 원(4억 9000만 원에서 4.9% 인상), 4억 5150만 원(4억 3000만 원에서 5% 인상), 4억 9350만 원(4억 7000만 원에서 5% 인상) 등에 거래가 이뤄져 '5% 인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이어졌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59.98㎡형은 이달 3일 보증금 11억 3000만 원(4층), 지난달 5일 11억 5000만 원(14층)에 각각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전세 계약 12건이 5억 586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싼 값이다.

송파구 올림픽힐리타운 전용 117.59

㎡형의 경우 지난달 14일 10억 원(13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같은 달 6일 5억 4600만 원(2층), 20일 5억 7750만 원(11층)에 거래된 전세 계약보다 2배 오른 수준이다.

중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도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났다.

송파구 씨티극동1차 전용 59.95㎡형은 이달 5일 2억 9400만 원(4층)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다. 이는 2억 8000만 원에서 5% 올린 금액으로 추정된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20일 4억 5000만 원(10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보름 사이 맺은 두 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억 7000만 원에 달했다.

재건축 아파트로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형의 경우 지난달 27일 6억 원(2층)에 신규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같은 달 12일 3억 원(13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보다 2배 비싼 값이다.

이 밖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나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났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 전용

84.94㎡형은 이달 1일 8억 8000만 원(13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5억 3000만 원(3층)에 거래된 것보다 3억 5000만 원 비싼 금액이다.

금천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전용 59.97㎡형은 지난달 17일 보증금 5억 9000만 원(31층)에 전세 계약을 썼다. 같은 평형 아파트는 이달 2일 3억 9900만 원(6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3억 8000만 원에서 5%(1900만 원) 오른 값으로 계약 갱신 거래로 보인다.

강동구에서도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 84.97㎡형이 지난달 5일 4억 9800만 원(4층)에 전세 계약이 갱신된 데 이어 9일에는 9억 5000만 원(31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나흘 사이에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 차이가 2배가량 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교육과 직장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전세 수요는 여전히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이 전체적으로 크게 뛰고 있어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의 주거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100원 동전 충무공 초상 교체 검토... 바꾸는 김에 화폐 개혁?

친일 화가가 그린 이순신 영정이 정부 표준영정 지정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속 영정도 친일 작가가 그린 것이라 향후 표준영정에서 해제될 경우 이참에 화폐단위를 변경하자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단위 변경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는 새로 화폐를 찍는 비용인데 영정이 바뀌면 여차피 화폐를 새로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충사관리소

친일화가 작품 논란... 5000원·1만원·5만원권도 변경 거론
'1000원→1환' 리디노미네이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

가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에 대해 정부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심의 중이다. 한은은 화폐 도안의 위인 초상에 대한 정부의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될 경우 도안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우성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짜리에 새겨져 왔

다. 5000원권(울곡 이이), 1만 원권(세종대왕), 5만 원권(신사임당) 속 정부 표준영정의 경우 이이와 신사임당 영정은 김은호 화백이, 세종대왕 영정은 김기창 화백이 그렸다. 이들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지폐 속 영정을 바꾸려면 결국 새로 찍

어야 한다. 이에 화폐의 액면 단위를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주열 총재도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업무처리 간소화로 인



한 비용절감, 자기앞수표 발행 등 관리비용을 고려하면 5년간 약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화폐 도안을 바꾼다고 이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섞어놓고 팔다 걸리니 “개별 점포”?… 대기업 편법 횡행

보호업종 특별법 무용지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 이 길을 잃고 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을'인 소상공인은 법적 보호 테두리 안에서조차 대기업에 짓밟힌다. 동반 성장과 상생을 외치던 '갑'은 중소기업 몰래 원천기술을 탈취하고, 편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부를 축적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키려 했던 상생은 구색을 갖추듯 짜인 애매한 법률 조문과 대기업의 책임 회피식 '상생협약'에 밀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영풍문고 vs 중기부 정면충돌 = 10월 24일 오후 신림역 앞에 있는 영풍문고 신림포도물점. 참고서, 시, 소설 등 다양한 서적을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인다. 건물 한 층을 영풍문고가 다 사용하고, 매장 안에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가 음료를 팔고 있다. '스터디존'이라는 간판을 내건 이곳은 학습참고서만 취급하는 전문매장이다. 언뜻 보면 영풍문고가 내부에 '초중고 학습지 전문점'을 따로 인테리어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은 '서점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 권고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이 같은 처분은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이 지정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첫 사례다. 중기부는 이곳이 생계형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점업종이 지난해 10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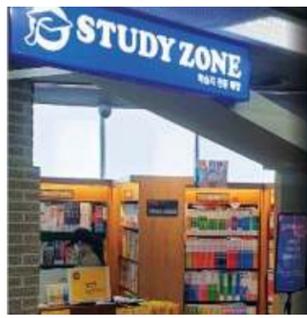
중기부 “영풍 ‘스터디존’ 규정위반” “숨앤숨 개념, 정부조치 역을” 반박 허술한 규제에 대기업 잠식 속출

이전부터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은 대형 서점은 기준에 판매한 기간을 더해 18개월간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했는데, 영풍문고 신림포도물점은 내부에 별도 점포를 입점시켜 학습참고서를 지속해서 판 것이다.

'스터디북'이라는 상호로 돼 있는 이곳은 2019년 6월부터 학습참고서를 팔았고, 권고대로라면 올해 11월 30일까지 학습지를 판매해선 안 된다. 반면 영풍문고와 해당 매장 측은 중기부 권고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스터디북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이고, 단지 영풍문고 내에 점포만 가진 '숨앤숨'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터질 게 터졌다 =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에서 발생한 '권고위반'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터질 게 터졌다"고 말했다. 생계형적합업종이 지정됐을 때부터 빈약한 특별법 규제 조항으로 '꼼수 영업'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풍문고와 해당 업체 모두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며 "법이 미약해 '권고를 위반했다'는 행정처분만 내린 게 유감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측이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된다. 법에 따르면 대기업 대형 서점은 1년에 신규 점포를 한 곳만 낼 수 있고, 3년간 참고서를 판매해선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물게 되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현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종)	서점, LPG소매, 자판기 운영,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5년)
업계 자율 상생협약(9종)	메밀가루, 제과점, 앙금류, 햄버거방, 어묵, 화초소매, 전통떡, 도시락, 막걸리
중기부 심의준비(4종)	중고차매매, 자동차수리, 오프셋인쇄(상생협약예정), 면류3종(국수·냉면·당면)
동반위 실태조사(4종)	폐목재재활용, 떡국떡, 떡볶이떡, 보험대차서비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달 24일 신림역 앞 영풍문고 신림포도물점에서 시민들이 매장에 진열된 책을 골라 읽고 있다. 이곳은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에서 '학습참고서 판매 중단 권고'를 지키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첫 번째 장소이다. 사진 왼쪽은 영풍문고에 입점한 스터디북, 이재훈 기자 yes@

만 제도 시행 이전에 참고서를 팔았다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 동반위와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어도 18개월만 지나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영풍문고 신림포도물점처럼 '권고' 조치나 고시에 권고 위반 내용을 '공표'하는 시정 명령이 최대한의 행정처분이다. 감독기관인 중기부는 고시로 '이 업체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종의 망신주기밖에 할 수 없다.

'서점업은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점업 이후 추가로 지정된 자동판매

기·LPG·두부 소매업 등 8개 생계형적합업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향후 지정될 다수의 업종에서도 서점업과 같은 악순환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서점업의 생계형적합업종 1호 지정에 공을 들였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측은 "착잡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권미선 한국서련 문화사업정책팀장은 "서점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생계형적합업종이 지정될 것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 및 강화,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yes@

생계형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을 신청해도 대·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철회된다.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의 경우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서점업의 경우 5년간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한다. 다만 업계 반발을 감안해 예외규정으로 1년에 1곳 정도 신규 출점을 허용했다.

'위반 점포주' A씨의 항변

“영풍문고 믿고 계약했다 가게 닫을 판 나도 소상공인인데 누가 보호해주나”

영풍문고 신림포도물점에서 학습참고서 점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자신의 상가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입점했던 2019년 6월만 해도 생계형적합업종 1호 항목으로 서점업이 선정되지 않았던 데다, 영풍문고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인 자신이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영풍문고 제안에 따라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점포를 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자신의 점포가 대기업인 영풍문고와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형성한다'고 간주, '참고서 판매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속앓이가 시작됐다.

A 대표는 처음엔 "억울한 마음에 중기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A 대표는 올해 11월 30일 이후로는 판매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참고서를 판매하지 말라'는 법리상의 권고가 그 날 끝나서다.

A 대표는 "힘 있는 중기부가 법적 검토를 통해 제가 '권고'를 위반했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먹고 살길이 막막해 판매를 이어갔다"며 "스스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은 나쁜 소상공인이 된 듯해 가슴이 짝 막힌 듯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A 대표가 중기부 권고를 그대로 지킬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A 대표는 영풍문고 사당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점포를 냈다. 신림포도물점은 서점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에 개점해 '권고'로 시정 명령이 그쳤

지만, 사당점은 사정이 달랐다. 사당점은 서점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 3개월 뒤인 올해 1월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무조건 3년간 참고서를 팔면 안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에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A 대표는 사당점 역시 영풍문고의 제안에 따라 입점했다. 그곳은 영풍문고가 아닌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했다.

A 대표는 "영풍문고가 믿어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장기계약을 했는데, 사당점은 아예 점포를 철수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대기업이 법적 검토까지 다 마치고 계약을 해도 된다고 해서 입점했는데 무작정 철수하라고 하니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풍문고는 A 대표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영풍문고는 신림포도물점과 사당점 모두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 입점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마치고 A 대표의 입점을 타진했지만 중기부 유권해석이 '권고'를 위반했고, 법까지 어졌다고 하니 도리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흥기표 영풍문고 이사는 "법적 대응도 고려했지만, 정부기관과 맞서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 A 대표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대표는 "생계형적합업종은 분명 소상공인을 위해 지정했는데, 되레 소상공인인 제가 법을 위반하게 되고, 점포까지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저처럼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이런 청량함은 처음이야

Chilsung Cider × BTS

“마스크 써 달라”... 바이든, 당선 첫 행보는 ‘코로나 억제’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일성은 “마스크를 써 달라”였다. 미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경제’ 대신 ‘건강과 안전’을 선택했다는 평가에 걸맞게 바이든 당선인은 발 빠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대책들을 내놓았다.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구체적 정책 구상을 밝힌 건 7일 대선 승리 연설 이후 처음이다. 이날 연설에 앞서 그는 공중보건 정책 및 감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TF팀과 온라인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연단에 선 바이든 당선인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후 곧바로 팬데믹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시킬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이날 출범한 코로나19 TF팀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구체화해 취임과 동시에 실행할 방침도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지 여부는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 바이든은 “사업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제어하는 데 모든

TF팀 결성... 온라인서 첫 회의
대책 구체화·취임 동시 실행 밝혀

“백신 승인, 완벽하고 투명해야”
‘줄속 승인’ 트럼프 정권 견제도

것을 동원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날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는 등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바이든은 “미국은 몹시 어두운 겨울과 최악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마스크를 써 달라”며 “모든 사람이 앞으로 몇 달간 마스크만 쓴다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식해 “선거는 끝났다. 당과 대립은 그만 둘 때다.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상관 없다”며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국민의 결속을 촉구했다.

바이든은 이날 나온 화자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 소식에 “긍정적 뉴스”라고 환영하면서 “승인이 나더라도 향후 몇 개월은 폭넓게 이용할 수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는 과학을 기반으로 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코로나19 대응 테스크포스팀인 ‘트랜지션 코로나19 자문단’ 멤버들과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이날 발족된 테스크포스팀은 바이든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구체화한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벽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역설, 줄속 승인을 강행하려던 트럼프 정권을 견제했다.

바이든은 이날 공중보건정책 및 감염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시켰다.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위원인 데이빗 케슬러 박사와 마르셀라 누네즈 스미스 예일대 박사, 비벡 머시 전 외과의장 등

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측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릭 브라이트 백신 전문 박사도 TF에 합류했다.

CNN은 “TF팀 명단 공개는 과도기 정부의 첫 번째 주요 발표로,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바이러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01만 8278명이었다. 인구 3억2820만 명인 미국에서 100명당 3명꼴로 걸렸다는 의미다. 누적 사망자 수는 23만774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고대영 기자 kodae0@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이든 시대, 韓 자동차 위기·반도체 기회”

“美경제 민족주의 기대 반 우려 반 ‘안미경중’ 전략 시험대 오를 것”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내세우면서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의 관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국산업 보호, 수입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사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컨서트 온라인 강연에서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교수는 “조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의 국민포용 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부역 등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를 부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친환경 중심의 경제·산업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재가입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 목표도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정책에 있어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新)경제 동맹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들도 환경과 노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공정부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환경·노동 기준을 강화한 신북미무역협정(USMCA)의 확대가

가능도 커진 가운데 기존 가입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외에 영국과 일본도 가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對美)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신경제 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라며 “USMCA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 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같은 날 개최한 ‘대선 이후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 간담회’에 참석한 전 미국 상무부 법률·정책 고문인 스테이시 에팅어 케이엔엘게이트 파트너 변호사 또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서 탈피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통상 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이 전통적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그동안 고수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유진 기자 eugene@

강경화·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한미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며 한미 관계,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0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미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

제와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 논의한 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명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결선 라운드에서 응고지 오콘 조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보다 적은 표를 얻었지만 컨센서스 도출 과정에 참여하고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외교부

있다. 미국은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밝힌 상태다. 정일환 기자 whan@

트럼프 ‘마지막 몽니’ 시작됐다... 트위터로 ‘에스퍼 국방장관’ 해임

대선 패배 불복 보복성 인사 밀러 대테러센터장 직무대행



9일(현지시간) 경질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임기가 두 달여 남아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의 화풀이로 보복성 인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매우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될 거라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러는 잘할 거다!”라며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다. 그의 봉직에 감사한다”는 짧은 말로 해고를 통보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이 같은 돌발 인사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 취임 때까지 정권이 행 시기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국방장관을 자리에 두는 게 통상적이어서다. 트럼프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까지 현직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해 ‘눈엣가시’로 여겼던 인물들을 축출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7월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지 않아 ‘에스퍼(Yes-per)’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에스맨’이었다. 그러다가 둘 사이가 벌어진 건 올해 6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군 동원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부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에 군을 투입해 진압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에스퍼 장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후 그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

됐다. 5일에는 에스퍼 장관이 사직서를 준비한 상태였다는 NBC방송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에스퍼 장관의 해임을 시작으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퇴임 전까지 그의 적으로 간주되거나 대립했던 인물들을 줄줄이 해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사 보복’은 6일 보니 글릭 국제개발처 부처장 해임으로 이미 시작됐다. 에스퍼 다음으로는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우스웨스턴대학의 에밀리 시드너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행정 권한의 행사 능력에 대한 역제가 작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개된 군사 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스퍼는 해임 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는 취지로 4일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결국 내가 말했듯이 싸움을 선택해야 한다”며 “나는 무엇에 대해서도 싸울 수 있으며, 큰 싸움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예방효과 90%” 세계가 들썩... 샘플 적어 신중론도

4.4만명 대상 3상 시험 중간 발표
이달 FDA 긴급 승인 요청 예정
임상 완료 후 부작용 변수로 남아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90%가 넘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흥분에 휩싸였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백신 임상시험 3상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4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화이자는 약 4만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중 절반에게는 개발 중인 백신을, 다른 절반에게는 위약을 투여했는데 94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94명의 감염자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위약을 투여받은 사람이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 확진자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접종의 사람에게서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앨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과학과 인류에게 멋진 날”이라며 “공중보건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산한다면 이번 백신은 지난 100년 중 가장 중요한 의학 발전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주요 내용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7월 임상시험 3상 착수
- 참가자 약 4만4000명 중 94명이 코로나19 감염
- 그중 대부분은 위약 투약. 백신 효과 90% 이상

좋은 결과인가

- FDA 백신 긴급사용 승인 예방효과 기준은 50%
- 인플루엔자 백신 효능은 40~60%
- 홍역은 2회 접종에 97%

안전성 문제

- 화이자, 소규모 임상시험서 47지 버전 백신 시험
- 가장 부작용 적은 백신으로 임상 3상 착수
- 긴급사용 승인으로 접종의 사람들과 시험 참가자들 2년간 모니터링

※ 출처: 뉴욕타임스(NYT)

백신 접종 일정

- 11월 셋째 주 FDA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 예정
- 외부 자문위원회 안전성, 효능 점검 등에 수주 소요
- 연말까지 의료 종사자 등 특정 고위험군 접종 가능
- 화이자, 연말까지 1500만~2000만 명 접종 가능 주장

다른 백신 개발에도 도움 될까

- 화이자 백신은 mRNA
- 미국 모더나도 같은 방식의 백신 3상 진행 중
- 한국과 중국, 영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은 초기 시험

입도선매 상황

- 미국, 1억 회분(2회 접종 필요로 5000만 명분) 구매 계약
- EU, 2억 회분 확보
- 일본 1억2000만 회분·캐나다 최소 2000만 회분 계약 체결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이달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FDA는 “임상 3상에서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험해 예방 효과가 50% 이상 나오면 백신을 허가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과학계도 백신 효과를 최대 75%로 예상했던 만큼 화이자의 성과는 놀랍다는 평가다. 미국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화이자의 보고는 매우 놀라운 것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리의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가 75%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을 얻고 인구 상당수가 이를 접종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화이자 측은 연내 최대 5000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을 1인당 2회 접종해야 하므로 2500만 명분이다. 내년에는 최대 13억 회분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은 CNBC에 “화이자 백신은 이르면 12월 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년 3분기까지는 널리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을 둘러싼 입도선매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 정부는 7월 화이자와 백신 1억 회분 구매 계약을 맺었다. 유럽연합(EU)도 9월 화이자 백신 2억 회분을 선매 입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1억 2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도 최소 2000만 회분을 받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모두 한목소리로 “좋은 소식”이라며 기뻐했다.

이 소식이 희망 고문이 될 것이라는 불안은 여전하다. 화이자는 총 164건의 코로나19 사례가 발견될 때까지 시험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므로 백신 효과에 대한 초기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 임상 3상이 완료돼 모든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수치가 완전히 바뀌거나 뜻밖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화이자의 유망한 백신 결과는 ‘타널 끝에서 빛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백신이 널리 사용되기까지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해 일부는 이미 긴급사용 승인까지 한 상태다. 과학계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의 백신은 최종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화이자 낭보에 백신 개발 가시권

국내기업 '위탁생산 전초기지' 되나

녹십자·SK바이오 등 여력 갖춰
경제적 효과·물량 확보 '두 토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가시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내년 하반기 백신 접종을 목표로 본격적 준비에 착수한다.

◇정부, 화이자 백신 도입 논의 =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부 본부장은 “9개월 만에 임상 3상을 통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좋은 상황임에 틀림없다”면서 “앞으로 나올 추가적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화이자 백신 도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실무적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시기도와 맞아떨어진다. 제넥신은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 'GX-19'의 임상 1/2a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상에서 충분한 효과를 확인하면 긴급사용 승인으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긴급사용 승인 시점은 내년 여름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 백신 공급체인 코백스(COVAX)를 통해 1000만 명분, 개별 기업과 협상을 통해 2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각각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위탁생산 기지 기대감 = 화이자는 올해 총 500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하고, 내년에 13억 회 투여분을 제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신은 2회 투여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내년까지 약 6억 7500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셈이다.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화이자와 백신 도입을 위한 사전 계약을 맺었다. 이들 국가가 사전 예약한 물량은 5억 명분이 넘는다. 따라서 뒤늦게 백신 확보에 뛰어들어 우리나라에 돌아올 물량이 충분하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사되면 위탁생산(CMO)을 통한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할 분량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업계는 위탁생산이 가능한 기업으로 백신전문기업 GC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최대 C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GC녹십자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장 RNA 기반 백신을 생산하기 어렵지만 별도 설비와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계 최초

병원 내 키오스크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

업계 최초

GPS 기반 긴급출동기사
실시간 위치 안내 서비스

업계 최초

보험안내
모바일 통지 서비스

모두가 디지털을 이야기할 때,
KB손해보험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탐험가의 최초 정신으로
오늘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아는 보험에서
디지털을 하는 보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 폐업 땀 재기 힘들어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서울 도봉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60대 이모 씨는 텅 빈 가게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한창 장사가 잘될 때는 일하는 직원이 4명이나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후 월세와 인건비로 매달 적자만 2000만 원에 달했고 결국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다. 지금은 딸과 사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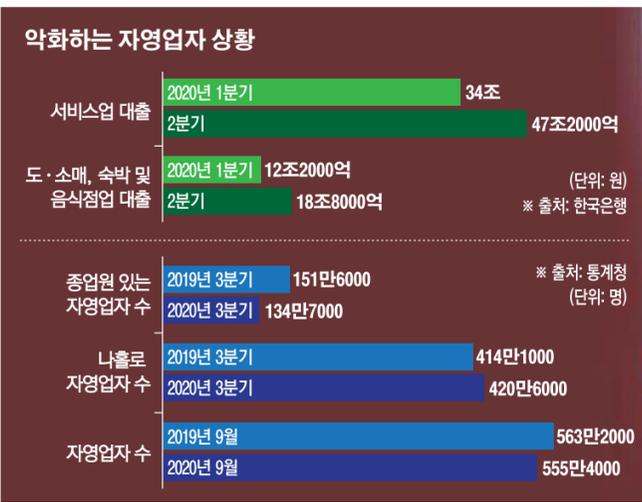
이 씨는 "가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며 "코로나 이후 배달을 시작하며 버티고 있지만, 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어 가게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순두부집을 하는 김모 씨는 1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올해 초부터 부동산에 내놨다. 하지만 인수하겠다고 나서서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2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1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건물주가 3개월 정도는 월세를 깎아주기도 했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다"며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원상복구비에 보탬이 있는데, 이제는 가게 문을 닫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버티기'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직원들을 내보냈다. 급한 대로 가족이 뛰어들어 일손을 보태고 빚을 내 근근이 가게 문을 열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게를 그만둔 직원처럼 자영업자들도 언제든 실직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시름은 커지고 있다.

◇빚은 늘고 직원은 해고 = 수많은 자영



영세 외식업체 매출 80% 감소 2분기 서비스업 대출액 13조 ↑ 나홀로 자영업자 420만명 넘어 소규모 상가 공실률 6.5% 최고 채용시장 얼어붙어 취업 어려워

업자는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텼다. 한국은행의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 대출금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 분기 34조 원보다 10조 원 이상이 늘었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 증가액은 12조2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자영업자들이 이 기간에 빚으로 버텼다는 것이다.

빚으로도 모자라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를 포함한 나홀로자영업자도 421만 명에 육박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134만7000

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9000명이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6만5000명이 늘어난 42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추세"라며 "창업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을 쓰지 않고 자동 주문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영향이 있고, 코로나19로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창업할 때 아예 직원을 두지 않으면서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욱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을 안 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대부분은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 폐업하면 그냥 '실업자' = 자영업자의 폐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5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만70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 폭이 1.5배 커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분기 말 기준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5%로 한국감정원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9월 기준 전국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 건수도 9720건으로 이미 지난해 6503건을 추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PC방과 식당, 노래연습장, 카페 등 대면 중심의 자영업은 위축되거나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로 신규채

용 시장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전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다른 데 취직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대다수 영세 외식업소는 매출이 80% 이상 줄었고, 매출 악화를 넘어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피해 외식업소의 생존을 위한 임차료·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특별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부터 누적된 자영업자 과밀,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돼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불황의 늪' 자영업 내수 악영향 악순환

자영업 비중 20%... 위기에 취약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0.7% (2019년, 무급가족종사자 제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과 함께 상위국가에 속한다.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이는 다시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는다. 이 때문에 불황의 늪에 빠진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월 17만2000명 감소에 이어 15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9월 133만2000명은 같은 달 기준으로 약 30년 만인 1991년 9월 이후 가장 적다.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어디로 갈까. 폐업하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사장님이 된다.

9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우리나라의 약 70%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늘었다. 절반 정도는 직원을 내보내고 나머지는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어려워져 고용을 못 하게 되면 보통 가족이 투입돼 '무급가족종사자'가 늘게 된다. 그러나 9

월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5000명 줄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대표적인 자영업업종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8월 21만5000명에서 38만2000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청년,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과 숙박·음식업 등 취약업종 종사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달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는 50대(-14만 명), 40대(-10만 4000명)에서 비임금근로자 감소세가 컸다. 이들은 주로 가구의 주 소득원, 즉 가장들이다. 이들 자영업자의 폐업은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고용하는 임시·일용직 숫자도 줄고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해 사회보장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이후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은 4월 78만3000명 감소한 이후 9월 34만4000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미룰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고용불안 '경제허리' 휘청

비기간제 근로자 31만명 감소 40대 전체 고용률 1.5%P 뚫

청년층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연령계층은 '경제의 허리' 40대다. 특히 40대 후반은 외환위기(1998년) 전후 취업한 '국제통화기금(IMF) 세대'다.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했던 탓에 경력 개발에 실패하고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에 잔류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때마다 고용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9월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45~49세)인 가구의 12.20%는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해 9월 10.25%에서 1.95%포인트(P) 확대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3월 이후 40대의 고용 불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40대 전체의 고용률도 전년 동월보다 1.5%P 하락했다. 40대가 타 연령대보다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큰 탓이다.

고용 형태도 문제다. 같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비정규직이라고

45~49세 미취업 가구주 비중 (단위: %)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



※출처: 통계청

해도 20대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지만, 40대는 한시적(기간제·비기간제) 비중이 크다. 한시적 일자리는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가구주인 취업자가 많다. 20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개인의 생활비를 번다면, 40대는 가구의 생활비를 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한시적 일자리가 최근 급감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5만5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도 한시적 근로자 감소(-17만7000명)가 두드러졌다.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비기간제로 나뉜다. 기간제는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일자리 공급으로 393만3000명으로 13만3000

명 늘었으나, 비기간제는 67만5000명으로 31만 명 줄었다.

줄어든 한시적 근로자는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상 비전형), 시간제 등으로 이동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 형태다. 교육 정도별로 대졸 이상 비율이 37.7%로 시간제(27.2%), 비전형(23.3%)보다 높고, 전일제 비중이 커 월평균 임금은 시간제의 2배를 웃돈다. 여기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시간제, 비전형보다 2배 이상 높다. 퇴직급여 등 근로복지 수혜율과 노동조합 가입률도 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높고, 임금지불 적용 형태는 절반 가까이(57.1%)가 월급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한시적 근로자는 어느 정도(고용) 유지가 가능한 사람이고, 전일제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시간제의 경우에는 전일제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래서 하루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우위에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전형 근로자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해 한시적으로 줄고 비전형이 늘었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악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SK하이닉스의 첨단반도체가 언택트 시대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늘 함께하는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민주, 도덕성 최우선... 국민의힘 '시민 원하는 후보'

4·7 재보선 전략 '4黨4色' 정의당, 주거·환경 등 정책 마련 국민의당 '야권 재편·혁신' 주장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10일 구체적 전략에 대한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각각의 키워드는 '당헌 뒤집기', '시민의 목소리', '이슈 중심 정책', '야권 재편과 혁신'으로 압축된다. 당헌까지 뒤집으며 공천을 밀어붙이기로 한 민주당은 거센 논란과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지지율까지 하락해 이중고에 직면했다. 두 선거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민

주당은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여성단체들이 규탄 대회를 여는 등 민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또 전남 리얼미터가 발표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후보다 3.5%포인트 하락한 30.6%로 국민의힘(32.2%)에 밀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9일 선거기획단을 발족한 민주당은 후보의 도덕성을 공천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이미 경선준비위원회 구성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후보자 검증 강화하기 위해 '시민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제2 박원순·오거돈' 차단을 위해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우선시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보 예비경선에 '100%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차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본경선 역시 기존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대폭 수정해 당원 20%, 국민참여 80%의 비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후보 검증도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 당 내·외 인사는 물론 △법조인 △사회적 명망가 △인사 검증 경력 전문가 △여성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특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한 100여 개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정

의당은 지역별로 더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정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주거(부동산), 환경, 교통, 에너지(탄탄소 사회) 등의 메인 이슈 위주로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 꺼낸 '야권 재편 및 혁신' 키워드를 중심으로 야권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여러 차례 야권 구조 재편을 주장하며 유일한 대안으로 '새로운 혁신 플랫폼 구축'을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은 시큰둥해 혁신 플랫폼 구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특고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85.2%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가 92.4%로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 순이었다.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자(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희망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86.9%)와 40대(85.6%)가 높은 편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희망 비율이 높았고 월 400만 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 의사 비율
(단위: %)

학습지교사	92.4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89.9
방문교사	89.1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부 가입의사 설문조사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 87%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내야 해야 한다는 응답(87.3%)이 대부분이었다. 특고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7.1%,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한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55.4%)이 가장 많았다. 특고의 주된 이직 사유로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6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기간 종료'도 응답(17.9%)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등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조사 결과(특고 62.8% 고용보험 가입 반대)와 다소 상반된다. 이는 양측의 조사 기준이 달라서다. 고용부 조사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에 관한 것이고, 한경연 조사는 특고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3분기 서비스업생산 서울서 '나홀로 성장'

통계청 '서비스·소매 동향' 금융·부동산 호조에 반등

3분기 사·도별 서비스업생산이 서울에서 '나홀로'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0일 발표한 '3분기 사·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서 3분기 서비스업생산이 서울을 제외한 15개 사·도(세종은 별도 집계)에서 감소(이하 전년 동월 대비)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수·창고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부진했지만, 서울은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호조에 반등에 성공했다. 소매판매는 전남, 충남, 경남 등 8개 사·도에서 증가했으나, 제주, 인천, 서울 등 8개 사·도는 감소했다. 소매판매가 감소한 사·도는 대부분 면세점 밀집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입었다.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생산은 전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지만, 소매판매는 면세점을 중심으로 3분기 10% 가까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면 서비스업 비중이 큰 대부분의 사·도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불황이다. 인천은 서비스업생산 감소율이 2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생산에선 운수·창고, 소비에선 면세점이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면세점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홀로 소매판매 총지수를 11.39%p 낮췄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 서비스업생산은 감소 폭이 완화했으나, 소매판매는 30% 이상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는 서비스업생산 감소세 지속에도 소매판매 부진은 다소 완화했다. 부산은 소매판매가 2분기 5.0% 감소에서 3분기 0.4% 증가로 전환됐고, 대구는 감소 폭이 12.4%에서 1.5%로 축소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정의당 손잡은 국민의힘 강은미(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주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지상욱 여의도연구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민주당·한노총 "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노동준중의원단 출범... 한노총, 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0일 채택한 공동 결의문에서 "재난 시기에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호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준중의원단 출범식을 겸해 진행됐다. 노동준중의원단은 은노동 분야 5개 부문, 9개 과제를 선정하

고 플랫폼 노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사회안전망 강화·금융산업·공공부문 등 테스크포스(TF)별 팀장을 임명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노조법(교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노조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준중 사회 동반자"라며 "필수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현안도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를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9월까지 국가채무 800조... 재정 108.4조 적자

중앙정부 채무가 9월 말 기준으로 8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채무가 850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434조

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8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6월 110조5000억 원 이후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

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도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4조2000억 원 수입이 줄었다며 이를 빼면 전년동기대비 13조4000억 원 감소에서 8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스타트업에 덴 손정의... '유니콘' 대신 '공룡사냥'

소뱅 '비상장 기업투자' 전략 수정
아마존·페북 등 美 대형株 사들여

"앞으로 우리는 정보혁명에 투자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스타트업 사냥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유니콘에 집중한다는 기존 투자 전략을 접고, 앞으로는 상장 여부에 관계 없이 다양한 투자처에 자금을 투입하는 종합적인 투자회사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이신문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BG의 나아갈 방향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밝혔다.

그는 "9월 말 시점에 SBG는 미국 IT 상장주 2조1000억 엔(약 22조3000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비상장 유니콘 투자에 집중해온 SBG가 투자 전략을 크게 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월 이후 4조5000억 엔 규모의 자산 매각 방침에 따라 SBG는 통신 자회사 소프트뱅크 등의 일부 지분을 매각했고, 9월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홀딩스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줄이는 대신 기업에 소액 지분 투자하는 투자회사로의 정체성을 분명

종목	보유가치	종목	보유가치
아마존	63억	MS	3.7억
페이스북	2억	TSMC	2.5억
줌	18억	페이팔	2.4억
알파벳	14억	세일즈포스	0.6억
넷플릭스	10억	기타	22억
어도비	6.8억		

히 한 것이다.

그동안 투자 사업을 담당해온 10조 엔 규모의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의 투자처는 유니콘이라는 비상장사로, AI 등을 다루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7월부터는 포트폴리오에 아마존닷컴과 페이스북, 줌, 알파벳, 넷플릭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TSMC, 페이팔, 세일즈포스 등 미국 대형 IT 종목을 11개나 주위 담았다.

아울러 SBG는 40억 달러 어치의 기술주 콜 옵션을 사들여 '나스닥 고래(Nasdaq Whale)' 역할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에 대해 이날 손 회장은 "사람들은 우리가 나스닥 고래라고 하지만, 파생상품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SBG는 앞으로도 유니콘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지만, 보유 주식에서 차지하는 유니콘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투자 전략 선회 의지는 이날 인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했다. 라지브 미스라 비전펀드 최고경영자(CEO)와 마르셀로 클라우레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코 가스노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이사회에서 내보낸 것이다. 이날 인사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투자자들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올 2월, 25억 달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손 회장에게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는) 실리콘벨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미국 AI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하겠지만, 중심은 미국과 중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130년 역사 석탄기업 '피바디' 바이든 당선되자 파산 '먹구름'

판매량↓ 3분기 750억 손실
친환경 정책에 위기감 고조

13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석탄생산업체 피바디에 너지가 또 파산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탄광산업' 부활을 추진했지만 친환경·재생에너지라는 대세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피바디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파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회사의 파산 위험 발표는 2016년 3월 파산보호 신청 위험을 공시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회사는 2017년까지 2년간 파산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52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회사의 3분기 석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3470만톤에 불과했다. 순손실은 6720만 달러(약 749억 원)다.

석탄 판매량은 천연가스과 재생에너지가 북미 전력망에서 석탄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급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주요 고객 국가인 호주에서 제강 생산마저 감소하면서 피바디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장 급한 것은 채권단과의 협상이다. 거둬들인 손실로 부채가 쌓여가자 채권단들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초 피바디와 채권단은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담보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는 피바디가 은행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약정 수정과 채권단 및 은행이 2022년 만기인 회사채 연장을 연말까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 피바디 채권 가격은 달러당 40센트 수준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100센트였다. 이날 회사 주가 역시 7.69% 하락한 1.08달러에 마감했다.

피바디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인 노스앤티로프로셀 광산을 거점으로 하는 미국 대표 탄광기업으로 1883년 설립됐다. 석탄산업 호황에 한때 잘 나갔지만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탈석탄 정책에 나서면서 휘청이기 시작했다. 피바디는 앤티로프로에 위치한 나바호석탄발전소 3곳 중 하나를 폐쇄하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했으며, 2016년 대선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광산업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내년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망도 어둡다.

고대영 기자 koda00@

“판 돈 좀 받자” 트럼프 몽니에 성난 도박꾼들

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도박판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승리'에 거액을 베팅한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 베팅거래소 베팅퍼어스케 인지는 아직 미국 대선 승자를 둘러싼 베팅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과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선불리 수익 배당에 나서지 못하는 탓이다. 베팅퍼어 대변인은 이날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배당금을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승자의 승리 선언과 패자의 승복 연설이 나오면 베팅거래소에서 배당금을 정산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택하며 몽니를 부려 정산이 늦어지게 됐다. 베팅퍼어는 6일 홈페이지에 "정산을 하기 전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개표 상황의 명확성과 잠재적인 법적 분쟁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선은 5억7600만 파운드(약 8467억 원) 규모 베팅을 유치해 베팅퍼어의 20년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로 기록됐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6년 대선 당시 1억9900만 파운드가 모인 것이었다. 세기의 대결로 꼽혔던 2017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버지니아주 골프클럽에서 이동 중 양 엄지를 들어보고 있다. 스티어링/AP연합뉴스

년 메이웨더 대 코너 맥그리거전 당시 5100만 파운드가 모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선거 베팅에 몰린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100만 파운드를 베팅한 사람은 베팅퍼어의 역대 '큰 손' 3위에 올랐다.

최혜림 기자 rog@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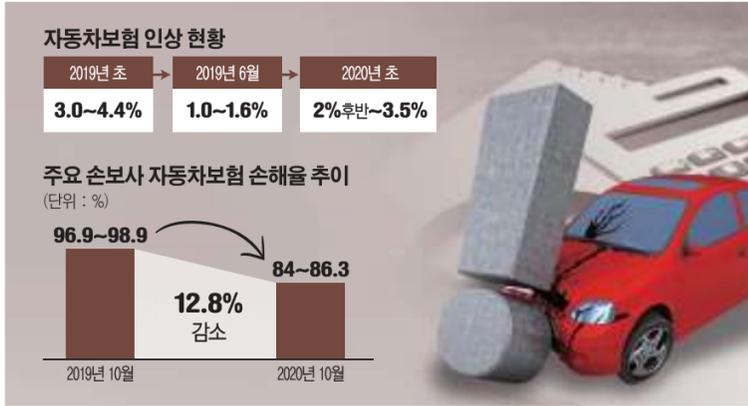
코로나發 손보사 손해율 하락... “올 車보험료 인상 없다”

작년에만 3차례 보험료 올렸지만 위기 공감... 요율 검증 업체 전무

“손해율 80% 중후반대 적자 여전” 손보업계, 보험료 인하엔 손사래

2021년 1월, 연례행사처럼 치러진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손해율이 대폭 개선돼 손보사들은 표정관리에 나섰다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에 착수한 손해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고, 이 같은 상황을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자동차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초 3.0~4.4%,



2019년 6월 1.0~1.6%, 올해 초 최대 3.5%가량 인상되며 매년 상승세를 이어간 것과 비교하면 다른 양상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차료 일람표 개정안을 토대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차료란 택시 등 영업·업무용 자동차

가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한 영업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뜻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파손 시 렌트카 이용비를 지급(실제 차량을 빌리지 않은 경우 렌트카 대여요금의 2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0% 선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되고 있다. 휴차료 상승에 대한 표준약관 반영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휴차료 일람표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보험료 반영은 향후에 보험료 인상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비 공임 인상, ‘무보험차 상해특약 약관’ 변경 등 보험사 입장에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잠잠한 건 코로나로 인한 손해율 하락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84.0~86.3% 수준에서 형성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6.9~98.9% 수준을 고려하면 평균 12.8%포인트(P) 감소했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86.3%로 지난해(97.1%)와 비교하면 10.8%P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84.0%로 전년 같은

기간(96.9%)과 비교해 12.9%P 개선됐다. DB손보는 85.5%로 지난해(97.8%) 대비 12.3%P 줄었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85.0%, 84.2%의 손해율을 보이며 지난해보다 13.9%P, 13.9%P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손해율 감소로 보험료 인상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손보업계는 손사래를 치고 나섰다. 손해율은 개선세여도 여전히 적자 폭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조 6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커 전년 동월 비교가 적절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유례없는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했다”며 “손해율도 여전히 80% 중후반대라 적자는 여전히 손해율 하락이 적자 폭 감소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관피아’ 논란에 발끈한 노조 서울보증 차기 수장 인선 ‘시끌’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피감기관 재취업 등 논란 제기
독단경영·단기성과 매몰 등 김상택 사장 내부 반대 변수



하지만, 공직자금이 투입돼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90%를 넘는다. 정부 입김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기관인 탓에

역대 대표 자리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 차지해 왔다. 문제는 유 전 부원장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 노조는 유 전 부원장의 재취업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감원 출신 승진 인사가 피감회사의 사장 자리로 옮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 전 부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기 전에 SGI서울보증 사장 자리에 먼저 응모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슷한 논리로 서 전 부원장도 논란이 됐다. 특히 SGI서울보증 노조는 금감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법적 책임 없이 풀려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관료 출신인 이들 후보가 내·외부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김 사장이 무난하게 연임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내부 출신인 김 사장의 연임은 ‘관피아’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김 사장 역시 내부에서 반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앞서 SGI서울보증 노조는 조합원 대부분이 ‘독단경영’, ‘단기성과 매몰’ 등 경영형태를 문제 삼아 김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SGI서울보증 임추위는 이사회에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객진산 기자 jinsan@

신한금융, 美서 1.2억 달러 인수금융 주선

신한금융그룹 글로벌투자금융(GIB) 사업부문은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제조업체 클로저 시스템즈 인터내셔널(Closure Systems International, CSI)에 미화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인수금융 주선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금융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써버러스(Cerberus) 캐피탈이 설립한 캐니

스터 인터내셔널 그룹(Canister International Group)이 미국 병마개 제조업체 CSI의 북미 및 일본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한 GIB 사업부문은 이번 딜에서 인수금융 총액 미화 4억5000만 달러 중 27%인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인수금융을 주선했다. 김범근 기자 nova@



BNK금융그룹이 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카카오편리프라이즈와 '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BNK금융그룹

BNK금융-카카오엔터, 디지털 경쟁력 강화 '맞손'

AI 기술 활용 전략적 업무협약

BNK금융그룹은 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카카오편리프라이즈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

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BNK금융은 이 협약으로 카카오편리프라이즈의 AI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금융 제공, 모바일 영업 활성화, 모바일 고객기반 확대, 내부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고객 유입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 구성, 인적자원 교류 및 상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모델을 구체화하며 비대면에 특화된 상담과 영업을 위해 AI 기반의 종합 업무 플랫폼인 '카카오워크'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문수빈 기자 bean@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반대

“국내 ESG 선도·지배구조 우수 주주가치 제고 연계 가능성 적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이어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했다. 세계 2위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KB금융그룹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먹구름이 겹쳤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S는 9일 배포한 KB금융그룹 관련 보고서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주총의 제3호(윤순진 사외이사 선임안)·제4호(류영재 사외이사 선임안) 안건과 관련,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유했다.

윤순진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대표는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라며 지난 9월 29일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이다. KCGS는 보고서에서 “KB금융은 국내

ESG 선도기업이며 우수한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주주 제안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KCGS는 ISS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중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가기관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국내 다수 기관투자자가 KCGS의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점유율 약 30%로 ISS와 함께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가 두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글래스 루이스는 “주주 제안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은 현재 회사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사회가 주주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취했을 때 정당성을 갖는데, 현재 회사나 이사회가 그렇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 자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낸 ISS는 지난 7일 추가 보고서까지 냈다.

ISS는 추가 보고서에서 “KB금융은 대형 상장 금융회사 가운데 최고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로, ESG 전문가의 부재가 회사 성

과와 주주 환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회사의 ESG 관련 성과가 경쟁사보다 부진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는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우리사주조합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충분한 찬성표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8일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화 한 바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양대 글로벌 자문사와 국내 KCGS의 의견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후 우리사주조합은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따르면 두 명의 사외이사 추천에 동의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 14~21일 위임장을 접수한 결과, 주주 제안을 위해 필요한 최소 지분율(0.1%)을 넘는 약 234만주(0.6%)의 주주가 제안에 동의했다. 이는 노조가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동의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서울로 잇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의선 '로봇개' 키우나... 61조 미래 투자 스타트

현대차, 1조1350억 규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추진
엔비디아와 손잡고 2년 내 전 차종에 커넥티드 두뇌 장착

2025년까지 기존사업 역량 제고 목적으로 41조1000억 원,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약 20조 원 투자를 공인한 현대자동차가 마침내 첫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6년간 61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 투자"를 공인한 지 약 1년 만이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현대차가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수 거래는 최대 10억 달러(약 1조13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 차 50%, PAV 30% 로봇 20% 전략 =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분사한 인공지능 로봇 기업이다.

2013년 구글이, 2017년에는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 2015년 로봇 개 '스팟'을 선보여 주목받았던 기업이다. 스팟은 네 발로 1초당 1.58m 속도로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다양한 동작을 해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협상 과정에서 매각이 무

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신중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일찌감치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 사업에서 자동차가 50%, 개인 항공기(PAV) 30%, 로봇이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대대적인 중장기 전략 투자도 내놔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6년간 61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년까지 기존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41조1000억 원, 인공지능과 모빌리티·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투자에 약 20조 원을 집행한다. 1조 원을 훌쩍 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전략은 20조 원에 달하는 미래기술 투자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에서는 이번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18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로봇 개 '스팟'을 시연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보스턴/AP뉴시스

다이내믹스' 인수 추진을 시작으로 현대차가 밝힌 "6년간 61조 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 자율주행·커넥티드 시스템 개발 협업 =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협업을 추진 중이다.

개인항공기(PAV) 사업은 지난 1월 CES 2020을 통해 '도심항공 모빌리티' 콘셉트로 구체화했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에 처음으로 도심 이·착륙장 건설도 공언했다.

이에 발맞춰 로봇틱스 사업도 확대한다.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과 접단 커넥티드가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나아가 자율주행차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인공지능(AI)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

디아와 손잡고 커넥티드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날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활용, 2022년부터 출시하는 시판 모든 차종에 관련 커넥티드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차가 달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

김준형 기자 junior@·유창욱 기자 woogi@



전후면 디자인 바꾼 르노삼성 '뉴 QMG6' 르노삼성에서 디자인에 변화를 준 중형 SUV '뉴 QMG6'를 10일 출시했다. 뉴 QMG6는 2016년 개발 초기부터 지켜온 전후면 디자인을 바꿨다. 특히 디자인의 핵심인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메시(Mesh) 패턴으로, 여기에 7월 선보인 '더 뉴 SM6'에 처음 적용한 다이내믹 턴 시그널도 새로 사용했다. 판매가격은 트림별로 2474만원부터 3324만원이다. 사진제공 르노삼성

SKIET, 분리막 공격 투자 자신감... 폴란드 현장 공개

배터리 핵심 소재 증설 잇따라
中 창저우서 첫 해외 양산 돌입
"폴란드, 유럽 전기차 주요 거점"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

1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KSSE)는 최근 공식 SNS에 SKIET의 분리막 공장 건설 현장을 공개했다.

KSSE는 이 게시글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생산설비를 증설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추가 생산공장 건설 결정으로 (이 지역의) 고용이 수백 명 더 늘어날 것"이라며 "SKIET는 배터리 분리막을 선도하고 폴란드는 전기차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 지역에 2021년 3분기 양산을 목표로 3억4000만㎡ 규모의 분리막 생산설비를 짓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여기에 3억4000만㎡ 규모

소재	생산규모	양산시점
한국 창저우·중평	5.3	2019년 10월
중국 창저우	3.4	2020년 4분기
폴란드 실롱스크주	3.4	2021년 3분기
중국 창저우	1.7	2021년 1분기
중국 창저우	1.7	2022년 1분기
폴란드 실롱스크주	3.4	2023년 1분기
합계	18.7	



의 분리막 생산설비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설비는 2023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SKIET는 충청북도 증평에서 분리막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 창저우

분리막 공장 한 곳도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첫 상업생산을 시작한 셈이다. 이 공장은 연산 3억5000만㎡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로써 생산능력은 기존 연산 5억3000만㎡에서 총 8억7000만㎡까지 늘어났다.

현재 중국과 폴란드에 추가로 건설 중인 공장들을 목표대로 가동한다면 2023년까지 양산능력은 18억7000만㎡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SKIET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급속 성장과 함께 분리막 시장에서 글로벌 생산거점을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다.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이차전지 분리막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8% 수준이다. 올해 약 41억㎡로 예상되는 시장 규모는 2025년 159억㎡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2025년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 약 30%를 달성하는 것이 SKIET의 목표다.

김범리 기자 kimstar1215@

한화솔루션 '고순도 크레솔' 진출 선언

(헬스케어 제품 기초재료)

3Q 화학·소재·태양광 모두 흑자
영업이익률 9.6% 2009년 이후 최대

올해 1월 합병 이후 분기 기준 처음으로 3개 부문 모두 영업흑자를 기록한 한화솔루션이 고순도 크레솔(Cresol) 사업에 진출한다.

한화솔루션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4284억 원, 영업이익 2332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1%, 35.7% 늘어난 수준이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24.1%, 81.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2009년 이후 최대인 9.6%를 달성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케미칼 부문은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7%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66.8% 증가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이어진 데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수요가 늘면서 PVC(폴리염화비닐), PO(폴리올레핀) 등 제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큐셀 부문은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47% 줄었다. 미국·유럽 등 주요 태양광 시장의 수요 회복세로 모듈 판매량은 늘었지만, 주요 원자재(웨이퍼, 은, 유리 등) 등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익은 줄어들었다.

첨단소재 부문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1.4%, 860%씩 늘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 증가에 따라 부품 수요가 회복했고,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신제품 출시로 전자소재 사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열린 '3분기 기업설명회 콘퍼런스콜'에서 "이사회에서 1200억 원 규모의 고순도 크레솔 사업을 승인했다"며 "2023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연간 3만 톤(t)의 생산공장을 여수 산업단지에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레솔은 헬스케어 제품, 농화학, 전자재료 등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정밀화학 소재로 앞으로 헬스케어와 정밀화학 사업을 케미칼 부문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사업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모듈+ESS', 발전소 사업이 가시적"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모듈+ESS'는 "올해 유럽,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 한국, 북·중미 등으로 확대해 판매 중"이라며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범리 기자 kimstar1215@

LG화학 '유럽 지속가능성 어워드' 최우수

에너지 부문에 '폴란드 배터리 공장' ...연 100만톤 탄소 절감

LG화학의 유럽 폴란드 공장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LG화학은 유럽 국제 금융기관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매년 진행하는 '지속가능성 어워드(Sustainability Awards)'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부문' 최우수상(Gold)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LG화학은 유럽 전기차 보급에 크게 이바지하며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LG화학은 연말까지 폴란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65GWh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능력으로 고성

능 순수 전기차를 매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100만 대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디젤, 전기차 등 전체 자동차의 6%에 해당하며, 65GWh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유럽 폴란드 공장은 2019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미시간 공장도 2020년 7월부터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또한, 한국 오창과 중국 남경 공장 또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두산퓨얼셀·글로벌 선사 나빅8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 양해각서

두산퓨얼셀이 글로벌 선사 나빅8(Navig8)과 손잡고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삼아온 두산퓨얼셀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한 첫 사례다.

10일 두산퓨얼셀은 나빅8과 '선박 추진·발전용 연료전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140여척의 석유화학 및 원유 운반선을 보유한 나빅8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고효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나빅8이 발주할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에 탑재하고 추진동력 및 선박 내 전원으로서의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갤노트20·갤Z폴드2 ‘초광대역 기술’ 적용 한 걸음 가까이 가면 다 열리는 세상 온다

현관·차문·개찰구 자동 잠금해제되고 PC 알아서 시동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20’과 ‘갤럭시 Z폴드2’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UWB(Ultra-Wideband, 초광대역)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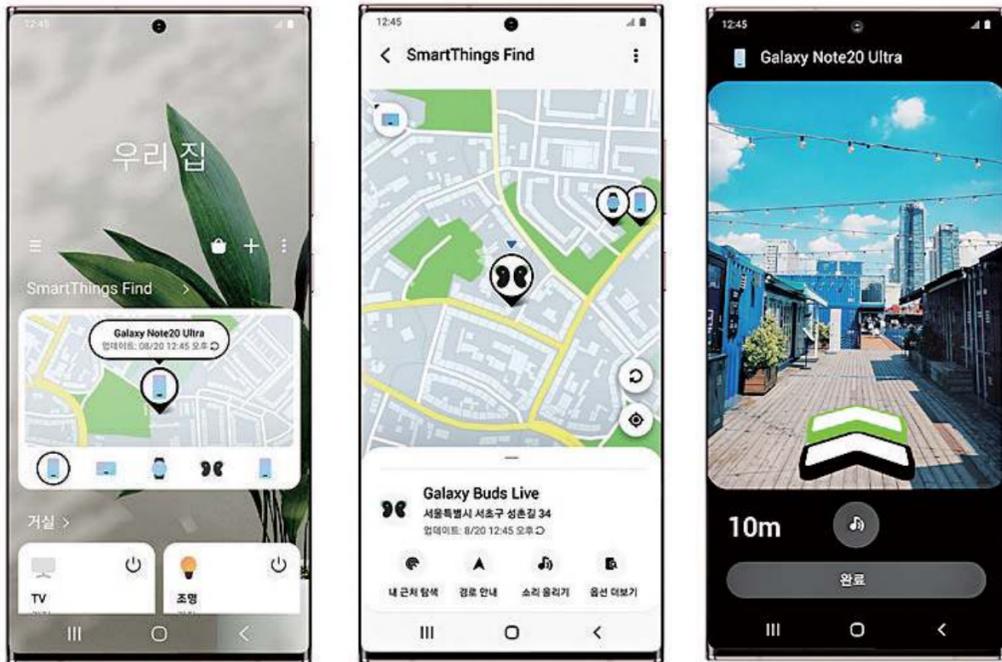
UWB 기술은 고주파를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이다. 매우 정밀한 거리 인식과 방향성이 특징으로, 모바일 기기가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 UWB를 통해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돼, 안전한 비접촉 근거리 결제부터 리모컨의 위치 찾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넓은 면적의 실내 공간에서도 정확한 위치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항에서 음식점을 찾거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UWB 기술을 활용한 파일 공유 기능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직관적인 파일 공유 경험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향후 UWB 기술에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해 사물을 정확하게 찾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디지털 열쇠로 이용해 건물이나 현관문 등을 여는 등으로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준 삼성전자 무선개발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조만간 열쇠를 직접 갖고 다니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새로 선보이게 될 삼성의 디지털 키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집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갤럭시 스마트폰이 현관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다. 더는 집과 회사 그리고 자동차 앞에



사용 중인 갤럭시 기기를 ‘스마트싱스 파인드’에 등록해두면 해당 기기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UWB 탑재 단말 사용자는 ‘서치 니어바이’ 기능을 활용, 분실 단말 위치를 AR 기반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공간 정밀한 인식 가능해 비접촉 결제·디지털키 등 활용 삼성, 보쉬 등과 표준제정 착수 갤럭시 ‘스마트싱스 파인드’ 접속 끊긴 기기 위치찾기 서비스

서 주머니나 가방 속 열쇠를 찾기 위해 애 쓰지 않아도 된다”며 UWB 기술의 미래 모습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UWB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술처럼 무선 통신 기술의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일찌감치 연구에 매진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아사아블로이 그룹, NXP반도체, 보쉬와 함께 UWB 표준을 제정하는 ‘FiRa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FiRa라는 이름은 우수한 거리 측정 정확도를 제공하는 UWB 기술의 고유한 특성

인 ‘Fine Ranging’을 의미한다.

소니, 라이트포인트, TTA가 컨소시엄 설립과 함께 최초 회원사로 가입했다. FiRa 컨소시엄 참여사는 서비스, 칩, 단말 외에 전장과 테스트 장비 랩(Lab)까지 폭넓은 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UWB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BLE(Bluetooth Low Energy)·UWB 기술을 활용, 갤럭시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스마트싱스 파인

드(SmartThings Find)’를 전 세계에 출시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사용자는 본인이 등록해둔 기기의 네트워크나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에 등록된 단말이 30분 이상 오프라인 상태면 자체적으로 BLE 신호를 생성하는데, 이 신호가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친 주변 스마트싱스 사용자 단말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사용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기기 분실 사실을 알리면 신고된 기기 인근 단말이 스마트싱스 서버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구조다.

위치 확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사전 설정을 통해 100% 암호화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처리되므로, 찾으려는 기기의 위치 정보는 신고자 외에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는다.

스마트싱스 파인드에 등록된 기기 위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등록 기기를 분실했을 경우, 스마트싱스 앱을 열고 찾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단말의 위치가 지도 위에 표기된다. 사용자가 분실 기기에 접근했을 때 알림음이 울리게 해 그 소리를 듣고 기기를 찾을 수도 있다.

UWB 기술이 탑재된 단말 사용자라면 증강현실(AR) 기반 ‘서치 니어바이(Search Nearby)’ 기능을 활용, 분실 단말의 위치를 컬러 그래픽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와이파이·블루투스 같은 무선통신 ‘게임체인저’

글로벌 50개 업체 협업 확장

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WB 기술을 연구 중인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 표준연구팀 전해영 연구원은 “UWB의 정밀한 거리·위치 측정 기능은 물류센터, 공장자동화, 쇼핑센터, 공공시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광대역(UWB) 기술은 수십 년 전 알려졌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게 된 특이한 경우다. 데이터 전송 용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많이 쓰이지 못했지만, 최근 거리측정 성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면서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의 기술’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는 과정이 쉽지 않은 않았다. UWB는 기기 간 연결이 중점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에서 글로벌 표준화 과

정이 필수적이었지만, 많은 업체가 UWB 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설득만이 답이었다.

전 연구원은 “전 세계 여러 기업에 UWB에 대한 삼성전자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며 “작년 1월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의 작은 회의실에서 디바이스, 칩, 서비스 등 각 분야 업체의 책임자들이 모여 표준단체 설립에 합의

했고, 그렇게 ‘FiRa 컨소시엄’이 탄생했다”고 회상했다. 글로벌 UWB 표준 단체 중심점에 삼성전자가 서게 된 계기다.

3개 업체와 함께 첫발을 내디딘 컨소시엄은 현재 칩셋·도어락·스마트폰·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 글로벌 업체 50여 곳이 참여할 정도로 몸집을 불렀다. 결제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IoT(사물인터넷) 기기 제어 서비스까지 UWB 기술이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전해영 연구원은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업체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UWB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휴대폰이나 카드를 갖다 대지 않아도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급한 작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면, 사용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해 곧바로 로그인 완료된다.

상상 속 신기술이 아니다. 기기 간 거리 정보를 활용한 기술인 UWB(초광대역)를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cm 단위까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UWB 기술의 장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UWB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술처럼 무선 통신 기술의 차세대 ‘게

‘창업기획자’ 4년 만에 300개사... 7000명 고용 창출

벤처캐피털과 달리 창업기업 투자뿐 아니라 선발·전문보육
1703곳에 2253억 투자... 후속투자 403건·인수합병 12건

국내 공식 등록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300개사를 돌파했다. 2017년 1월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도입 후 4년여 만이다. 이들 엑셀러레이터들은 1703개 스타트업에 2253억 원을 투자했다. 창업기획자 보육·투자자 700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후속투자 403건, 인수합병 12건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내 300번째 창업기획자로 유한회사 ‘케이아이엠씨’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다. 투자만 중심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털)와 차이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2005년 세계 최초의 엑셀러레이터인 미국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2016년 11월 3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창업기획자는 ‘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2017년 1월에 최초로 (주)아이빌트가 등록한 이후에 매년 80여개사가 등록을 해 이번 (유)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다.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9월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창업기획자 272개사의 피투자기업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간 총 1703개사에

창업기획자 (Accelerator·엑셀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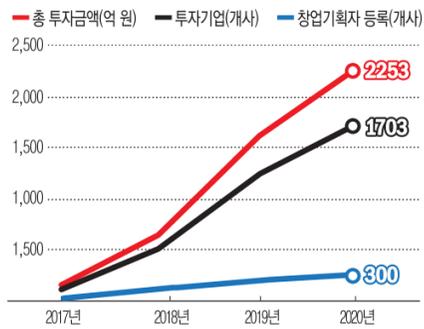
창업기획자(이사, 엑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253억 원(기업당 1.3억 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한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2017년 9월)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늘었다.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

창업기획자 등록 및 투자금 누적액



창업기획자 등록 현황

연도	등록	말소	누적(현재 활동)
2017년	56	4	52
2018년	81	2	131
2019년	81	3	209
2020년	82	1	290
합계	300	10	-

※ 2020년은 11월 10일 기준

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만405명→1만7418명)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6.3명→10.5명, 66.7% 증가), 2.6억 원(2.8억 원→5.4억 원, 92.8% 증)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팜스킨은 후속투자 80억 원을 유지했다. 팜스킨은 초유 가공 기술을 통한 초유 화장품 생산하는 스타트업으로, 매쉬업엔젤

스로부터 2017년 12월 1억 원의 투자를 받고, 팁스(TIPS)에 선정됐으며 이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80억 원의 후속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제도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주)한컴모빌리티는 한글과컴퓨터에 15억 원에 인수됐다. 한컴모빌리티는 2017년 8월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주차공유 플랫폼 ‘파킹프렌즈’를 개발했다. 스페클립스(주)는 (주)셀리온에 400억 원에 인수됐다. 이재훈 기자 yes@

“월 2만9900원... 신형 엑스박스에 최신게임까지”

SKT ‘Xbox 올 액세스’
24개월 약정 게임구독 서비스
‘배그’ 등 100여종 고사양 게임
콘솔·PC·클라우드 모두 이용



SK텔레콤 모델이 ‘Xbox 올 액세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신형 Xbox 콘솔과 ‘5GX 클라우드 게임’을 결합한 구독형 게임 상품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됐다.

10일 SK텔레콤(SKTEL)에 따르면 이용자는 24개월 동안 매월 이용요금을 내면 Xbox 최신형 콘솔과 PC,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Xbox 콘솔은 구독 기간이 지나면 고객 소유가 된다.

SKT는 ‘Xbox 올 액세스(Xbox All Access)’ 가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 ‘5GX 클라우드게임’과 Xbox가 공동 제공하는 ‘Xbox 올 액세스’는 Xbox 게임을 즐기 위한 디바이스와 게임 콘텐츠를 모두 제공한다. 즉 고객은 △차세대 신형 Xbox 콘솔

라 X와 S시리즈 두가지가 있다. 각각 월 구독료는 3만9900원과 2만9900원이다. 이용자가 구독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콘솔 잔여비용을 일시불로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다. Xbox 올 액세스 신청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SKT 고객에게만 서비스되며, 내년 이후에는 타사 고객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SKT 5GX 클라우드게임’은 시범 서비스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국내 개발사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지난달 29일 추가했다. 이밖에 ‘포르자 모터스포츠 7’, ‘레인보우 식스 시즈’ 등도 추가됐다. 또한 컨트롤러 없이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도 10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SKT 5GX 클라우드 게임’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Xbox가 제공하는 100여개의 고사양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진수 SKT 5GX서비스사업본부장은 “SKT는 구독형 게임 상품을 계속해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귀뚜라미 ‘보일러 프리미엄 시대’ 이끈다

신제품 ‘거꾸로 NEW 콘텐츠...’
‘IoT 실내온도조절기’ 기본 탑재
AI 스피커와 연동, 음성 제어도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일러 시장에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귀뚜라미는 첨단 기술을 더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부합하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 판매가 가능해졌다. 귀뚜라미는 ‘이제는 친환경 보일러도 프리미엄 시대’를 화두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올해 신규 TV-CF ‘친환경 보일러 2탄’을 통해 신제품 ‘거꾸로 NEW 콘텐싱 프리미엄’을 공개했다. 주거환경이 첨단화되고 있는 최근 건설업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온수증대 기술 등 최고급 옵션 사양을 모두 적용한 고급형 모델이다.

해당 제품은 최고 사양의 IoT 실내온도조절기인 ‘NCTR-100WIFI’를 기본옵션으로 적용했다. 보일러 1대에 최대 4대의 모바일 장비를 연결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보일러를 제어하거나 AI 스피커와 연동해 음성으로도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다.

고객의 보일러 사용 정보를 학습해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귀뚜라미보일러만의 ‘스마트 학습기능’과 실시간으로 보일러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자가 진단 알림 기능’ 등 편의기능도 제공된다.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일러가 스스로 진

단, 사용자는 알림 버튼을 눌러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조절을 최적화해 연료 소비를 줄여주는 ‘난방비 절약기능’과 우리집 보일러의 가스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 표시’ 기능을 신규 적용했다.

온수공급능력도 일반형 제품보다 뛰어나다. 대용량 온수공급에 특화된 저장식 보일러 구조에 온수증대기술을 더해 기존 모델 대비 최대 34% 더 많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화장실이 2개인 주택에서 온수공급량이 맞춰 보일러 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안정적인 온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양한 구매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거꾸로 NEW 콘텐싱 프리미엄’은 환경부가 에너지소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인증한 대표적인 친환경 콘텐싱보일러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거꾸로 NEW 콘텐싱 프리미엄’을 구매하면 최신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세이프 온(SAFE On)’도 무료로 제공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적기금 4조 원 돌파

공제사업 가입자 54만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내일채움공제 기금 누적액 4조 원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4년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누적 기금규모는 4조2000억 원, 공제사업 가입자는 54만 명을 돌파했다.

행사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기획관리 본부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부회장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우수 중소기업 대표자 등 7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기념식은 ‘내일채움공제! 기업, 근로자, 정부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의 샌드아트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대표 및 가입자와의 비대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우수기업인 이명희(주)솔트 대표, 김정록(주)한빛레이저 대표, 서영순(주)성이노텍 대표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또한 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자산관리 기법에 대한 미니 강연도 진행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과 재직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으로 항상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상생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부금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부금에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재훈 기자 yes@

채 권 신 고 공 고

당 회사는 2020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 11. 11.

주식회사 골드마인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3, 3층(역삼동, 세계빌딩)
청산인 김문수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귀농귀촌의 동반자

탐색·준비 단계부터 정착까지
농협과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함께 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맞춤 정보 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www.returnfarm.com)으로 등록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지자체(시·군)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성공 귀농귀촌의 필수품, 준비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도시농협이 제공하는 귀농귀촌 준비 교육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예약하세요.

※교육 안내·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농협 조합원 가입을 통한 다양한 농촌 정착 지원

귀농 후 조합원 가입 시 다양한 영농지원, 금융서비스,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 문의 : 귀농 (희망)지역 관내 지역농협



취급액 15조... 유통업 무한경쟁에 '온·오프 통합' 승부수

GS리테일·홈쇼핑 합병

GS리테일 1만5000개 점포
홈쇼핑, 1800만 회원 보유
물류센터 공유 시너지 기대
홈쇼핑 상품 편의점 판매도

온·오프라인 통합 매출 10조원, 취급액 15조원의 유통 공룡이 탄생했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의 결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GS리테일은 양사의 온·오프라인을 강점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쇼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롯데와 신세계로 대표되는 전통 유통업체에 쿠팡 등 이커머스와 네이버 등 IT기업까지 가세한 국내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GS리테일은 온오프라인 통합을 통해 위기 속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취급액 15조·하루 600만건 거래=10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리테일과 GS홈쇼핑 이사회는 이날 오전 합병안을 출석이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와 내년 5월경 개최될 예정인 양사의 주주총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7월까

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GS리테일이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자산 9조원, 연간 취급액 15조원, 하루 거래 600만건에 이르는 초대형 온·오프라인 겸업 단일 유통기업이 탄생한다.

GS리테일은 전국 1만5000개의 점포를 갖고 GS홈쇼핑이 3000만에 가까운 TV홈쇼핑 시청가구와 함께 1800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쇼핑앱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두 회사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쿠팡·롯데·신세계도 긴장=이번 합병에 유통업계의 이목도 쏠린다. 온라인 강자와 오프라인 강자가 극명하게 갈렸던 유통업계에서 온·오프라인에 모두 강점을 지닌 기업의 등장에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충분하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합병 결정은 오프라인 유통에 강점을 가진 GS리테일과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에 강점을 가진 GS홈쇼핑의 결합을 통해 국내외 유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자산 규모로는 롯데쇼핑(33조 원)이, 연간 매출액으로는 이



주요 유통기업 2019년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 합병 후 추정

업체명	자산	매출
롯데쇼핑	33조 9730	17조 6220
이마트	21조 950	19조 630
신세계	13조 180	6조 3940
통합GS리테일	8조 4820	10조 2020
현대백화점	7조 6230	2조 1990

※ 출처: 금융감독원

마트(19조 원), 거래액은 네이버쇼핑과 쿠팡(17~20조 원)이 선두로 거론된다. 합병 전 GS리테일은 지난해 9조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GS홈쇼핑은 1조 19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단순 합계로도 1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온라인 경쟁력 물류 시너지도 기대=양사의 합병에 대해 최근 이커머스 시장 확대의 관건인 물류망 강화를 위한 조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GS리테일이 보유한 전국적인 점포망과 물류 인프라를 통해 TV홈쇼핑과 모바일 커머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홈쇼핑과 편의점의 물류 센터를 공유함으로써 주요 거점과 점포망을 아우르는 촘촘한 물류망이 가능해진다.

홈쇼핑 자체 브랜드의 편의점 상시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홈쇼핑으로 주문하고 전국에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는 편의점 점포에 들러 물품을 찾는 O2O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아마존이 아마존고와 아마존프레시, 훌푸드와 같은 오프라인 점포로 확장한 것과 유사한 형태다.

아울러 고객 확보와 상품 구매 측면에서도 합병 법인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양사의 멤버십 회원 기준으로 GS리테일은 1400만 명, GS홈쇼핑은 18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중복 고객을 제외 하더라도 전국민의 절반 수준인 2600만 명의 고객 인프라를 확보하는 셈이다.

◇2025년 취급액 25조원 노린다=합병 법인 GS리테일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을 선도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가 지닌 IT인프라와 데이터 역량의 결합을 통한 '커머스 테크 리더'를 실현하고, 물류 인프라와 배송 노하우의 결합으로 종합 풀필먼트 사업으로 진화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통합 전략으로 5년 뒤인 2025년까지 취급액 목표는 25억 원으로 잡았다. 2020년 기준 연간 취급액 예상치인 15조 원에서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다.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채널 통합에 집중해 현재 2조 8000억 원 규모인 모바일 커머스 채널의 취급액을 7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은 "두 회사는 밸류 넘버원이라는 GS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어느 때 보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시기, 두 회사의 사업역량을 한데 모아 더 큰 고객 가치를 만드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고 말했다.

김호성 GS홈쇼핑 사장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지속하는 GS홈쇼핑 임직원의 DNA가 더 큰 터전 위에서 크게 뻗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세일 뒤 또 세일

코세페 잇는 올 마지막 행사

백화점 3사, 13일부터 정기 세일

롯데, 겨울 아우터 중심 '패션 페스타'
신세계, 해외 명품 브랜드 대거 참여

백화점 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13일부터 올 마지막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해외 명품, 다양한 기획전과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해 세일에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비심리 회복세의 불씨를 살려가겠다는 의도다.

롯데백화점은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패션 페스타'를 테마로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백화점 전국 매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패션그룹 패션위크'가 열린다. 대한민국 패션 양대 산맥인 '한섬'의 타임, 마인, 럽방컬렉션 등과 '삼성물산'의 구조, 르베이지, 빈폴이 참여한다. '바바패션'의 지고트, 아이잔바바와 '시선인터내셔널'의 미샤, 잇미샤가 동참해 38개 브랜드가 10~20% 할인 판매한다. 롯데카드 결제 시 추가 5~10% 할인이 중복 적용되며, 구매 금액대별 5% 상당의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올겨울은 여행과 외출에 제약이 많아지며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짧은 기장의 패딩 또는 코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롯데백화점은 숏패딩, 코트 물량을 전년보다 20% 이상 늘려 선보인다.

잠실점에서는 12일부터 17일까지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해 프리미엄 아우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프리미엄 패딩은 각 100개 한정 수량으로 '파라점퍼스 나나'를 75만 원에, '두노 아망페'를 69만3000원에 선보인다. 아울러 가벼우면서 멋을 더할 수 있는 아우터로 '피오리나 캐시미어 코트'를 48만 원에, '나우니스 밍크베스트'를 99만 원에, '비니치오파자로 화이트베스트'를 170만 원에 판매한다.

신세계는 같은 기간 전 점에서 단독 브랜드, 국내외 유명 브랜드 등을 앞세워 올 마지막 연말세

일에 나선다.

12일부터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리오웬스와 마이클코어스, 코치, 롱삼 등을 시작으로 지방시, 오프 화이트 등이 최대 50% 할인에 돌입한다. 21일부터는 분더샵, 마이분, 슈컬렉션, 분주니어 등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품 편집숍들도 시즌 오프에 함께 참여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세일을 맞아 대대적인 사은행사도 준비했다. 13~19일 '신세계 THE S 삼성카드'로 전 장르 합산 30·60·100만 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의 5% 상품권을 증정한다. 20일부터 26일까지는 신세계 씨티클리어 카드로 전 장르 합산 30·60·100만 원 이상 구매 시 5%, 단일브랜드 200·300·500·1000만 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13일부터 29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15개 전 점포에서 '윈터 시즌 오프'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1월은 연말 선물 수요가 많은 데다 아우터 등 겨울 의류 판매량이 높아 일년 중 가장 매출 구성비가 높은 시즌"이라며 "이번 세일 기간 패딩·코트 등 겨울 의류 물량을 늘리고, 프로모션을 집중해 협력사의 재고 소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시즌 오프 행사를 통해 남녀 수의류·컨템퍼러리·잡화 등 올해 신상품을 최초판매가 대비 10~50% 할인 판매한다. 13일부터 질센더·발렉스트라 등을 시작으로 무이·엠프리오아르마니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아우터 수요가 많은 스포츠·아웃도어 상품군의 경우 20만~4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플러스포인트를 증정한다. 또 타임·마인·시스템 등 한섬의 20여 개 브랜드에서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5% 마일리지에 5% 추가하는 '더블 마일리지' 혜택을 선보인다. 12일부터 15일까지 현대백화점카드로 10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6개월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오늘 득템 주인공은 누구?

11월 11일, 이커머스 모두의 축제

11번가 '십일절' 500억 규모 할인
위메프·이베이코리아 등 특가 맞불

이커머스업체들이 '11월 11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11번가가 회사명을 बना 만든 '십일절' 행사로 대대적인 흥행을 거두자 경쟁업체들도 같은날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개최해 견제에 나서고 있다.

◇십일절, 11년만에 일거래액 1500억 원대=10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2020 '십일절 페스티벌'을 앞두고 500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담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

주요 행사는 11일 오전 11시부터 매시간마다 방송되는 총 12번의 라이브방송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팜퍼스(P&G), 아모레퍼시픽, 닥터지 등을 단독 라이브 혜택으로 제공하고, BMW의 'THE new 5시리즈'를 온라인 최초로 공개한다. 11일 자정부터 밤 11시까지 매시간 몽클레어 클로에를 비롯해 LG 트롬 위스타워 등을 최대 70% 할인하는 타임딜 상품을 선보인다.

11월 11일 마케팅은 11번가의 사령이 비슷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최대 쇼핑 기간에 맞불을 놓아 해외직구로 나서는 소비자들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전략은 성공적이다. '십일절'은 2018년에는 1020억 원으로 행사 도입 10년 만에 일거래액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4% 늘어 1470억 원을 돌파했다. 하루 고객 수는 11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판매 상품수량은 429만 개로 53% 증가했다. 1분에 약 3000개, 1억200만 원어치의 상품이 판매되며 흥행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올해는 제휴사를 중심으로 단독 상품 기획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고, 최근 시작한 '선물하기' 서비스, '오늘장보기' '오늘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십일절 거래액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위메프에 롯데온·네이버도 견제 나서='십일절'의 흥행에 따라 경쟁 이커머스들도 같은날 집중 할인에 나서면서 '11월 11일'이 이커머스 최대 쇼핑 축제로 브랜드화되는 모양새다. 11번가를 견제함과 동시에 이날 쇼핑을 하면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소비 심리가 극대화되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위메프도 같은 날 최대 480개 상품을 특가에 제공하는 '1111데이'로 11번가의 '십일절'에 맞불을 놓는다. 식품과 패션·뷰티, 공연티켓 등 인기 카테고리 주요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베이코리아는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빅스마일데이'를 12일까지 연다. 당초 11월 1~11일까지 진행하던 행사를 지난해부터 하루 더 늘려 경쟁사들의 행사가 끝난 후인 12일에 미처 쇼핑을 마치지 못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행사 시작 8일만에 누적 판매량 2500만 개를 넘어선 역대급 실적으로 순항 중이다.

지난달 '롯데온세상'이라는 타이틀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던 롯데온도 12일까지 3일간 '어게인 롯데온세상'으로 다시 등판한다. '롯데온세상'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던 무스너를, LG전자 등 100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에 최대 50% 할인 쿠폰을 선착순 1만 장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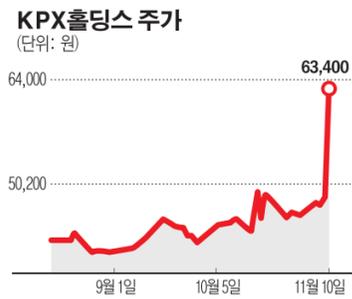
온라인 쇼핑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도 CJ오쇼핑과 함께 손잡고 '쇼핑라이브'를 통해 11일 '10시간 모바일 생방송'에 나선다. 포드메리온과 닥터자르트, 테일러센츠, 링티 등 CJ오쇼핑 인기 상품을 30~70% 할인 판매하고, 구매고객 중 구매인증을 남긴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시간마다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을 11명에게 지급한다. 남주현 기자 jooh@

‘화이자 백신’ 기대감... 코스피, 2450선 뚫었다

‘우리바이오’ ‘그린케미칼’ 등 화이자 관련주 30% 경증 마스크·진단키트 등 기존 코로나 수혜주는 급락 마감 전문가 “백신 안전성·효능 입증 안돼... 신중한 투자”

코로나 백신이 돈의 흐름을 바꿨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세계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온 덕분이다.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유럽은 물론 북미, 아시아까지 ‘백신발(發)’ 돈의 러시가 세계 증시를 달궜다. 과거에도 바이러스 대유행과 백신 개발은 세계 시장을 충격에서 환호로 바꿔놨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화이자 백신의 중간 결과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에도 신중한 것을 당부한다.

◇코스피 2450선 돌파·연고점 또 경신=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5.63포인트(0.23%) 오른 2452.8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부터 7일 연속 상승이다. 전날 기록했던 연고점(2447.20)을 다시 경신하며 2018년 6월 12일(2468.83) 이후 약 29개월 만에 2450선에 올랐다. 외국인은 1599억원을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인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해, 이 같은 수급 현황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개인도 1875억원을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반인에 게까지 백신 투입이 되려면 2021년 말이나 돼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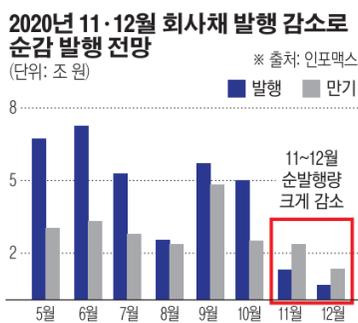
다 ‘정상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만으로도 투자 심리에는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핫머니의 흐름도 바뀌었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4.57포인트(2.95%) 급등한 2만9157.97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06포인트(1.17%) 오른 3550.50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백신 개발 진전 소식에 4~7% 급등했다. ◇화이자 관련주, 선부른 투자는 낭패=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우리바이오(30.00%), 그린케미칼(29.98%), KPX홀딩스(29.92%), 일신바이오(29.89%), 대한과학(29.88%), KPX생명과학(29.75%), 에이비프로바이오(29.65%)는 급등하며 장 거래를 마쳤다. 반면 마스크 제조 사업에 뛰어든 제이웨이(-28.14%), 진단키트 업체인 제놀루션(-19.98%)과 피플바이오(-22.11) 등은 급락했다.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인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소외됐거나 실적이 악화한 종목이 반등한 것은 맞지만, 아직 백신 개발이 완료돼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실제 백신이 언제 승인받을지, 배포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 반영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전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김하늬 기자 honey@

북클로징 시즌에도... 식지 않는 크레딧 시장

10월 수요예측 초과율 300.3% 정부 지원·美 대선 불확실성 해소 회사채 발행 감소에도 이례적 강세



기관들의 북클로징(장부 마감) 시즌이 도래했지만, 회사채를 포함한 크레딧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채 발행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지원 정책에 따른 수요와 미국 대선으로 인해 연초효과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10일 크레딧업계에 따르면 10월 수요예측 초과율은 300.3%를 기록, 3개월 연속 300%를 웃돌았다. 정부의 회사채 지원 등으로 발행시장 유입 자금이 풍부해짐에 따라 4분기 이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크레딧 강세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당시 9월까지 평균 350%의 초과율을 보였던 것과 달리 10월 수요예측 초과율은 264.8%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들어 회사채의 순발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발생 직후 3개월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선 데다, 11월 중순 3분기 검토보고서 제출로 인해 회사채 수요예측은 11월 1주~2주까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회사채의 대체재인 여전체의 강세 지속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로 인한 회사채 수요의 큰 축은 남아있어 11월에도 크레딧 약세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11월은 한 주정도 수요예측이 실시될 예정으로 평달에 비해서 회사채 발행 규모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SPV는 내년

1월 13일 매입 종료로 앞두고 약 1조 원의 매입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 회사채 발행 수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이 실시된 해로, 10월~11월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기관들이 소극적인 채권 매매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고 기관들이 앞서 소극적 매매로 비워둔 포지션을 다시 채울 것으로 보여 내년 연초효과가 선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초에는 매년 기관들의 자금집행 재개에 따른 크레딧 강세가 나타났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관들이 포지션을 채우는 과정에서 크레딧채권 매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은 오히려 크레딧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해운·항공 산업재편에 운송주 ‘방긋’

HMM 목표주가 31% 상향 조정 대한항공 영업이익 추정치 49% ↑

해운·항공등 운송주가 전면적인 산업재편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다. 10일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MM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날 세계적인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을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30.8% 상향한 1만7000원을 제시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컨테이너 운임 강세를 반영해 2020~2021년 이익 추정치를 상향(영업이익 기준 각각 12.2%, 21.9%)했기 때문”이라며 “컨테이너 시장의 강세는 코로나19에도 미국 및 유럽항로에서의 견조한 물동량 증가세가 3분기 초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HMM를 비롯해 최근 해운업계가 주목받는 것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업계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생존 전략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출혈 경쟁으로 적자에 허덕이던 해운사들은 대규모 결편을 통해 공급량을 감소했는데, 이는 운임의 정상화로 나타났다.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이달 6일 전주 대비 134.57 오른 1664.5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수년간 시장 재편을 겪으며 성과를 내는 해운사들이 달리 항공산업은 이제 막 산업재편의 막을 올렸다. 대한항공은 국내 1위 국적 항공사로 항공사 간 인수합병이나 폐업 항공사 발생 시 운임 정상화와 지배력 상승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면 시장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상위 업체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존한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대한항공이 내년 85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5740억 원)에서 49% 상향 조정된 것이다. 김우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과 같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의약품 운송 자격(CEIV Pharma) 인증을 받아 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극소수 항공사에 수혜가 집중되며 타 항공사와 다른 증의 기조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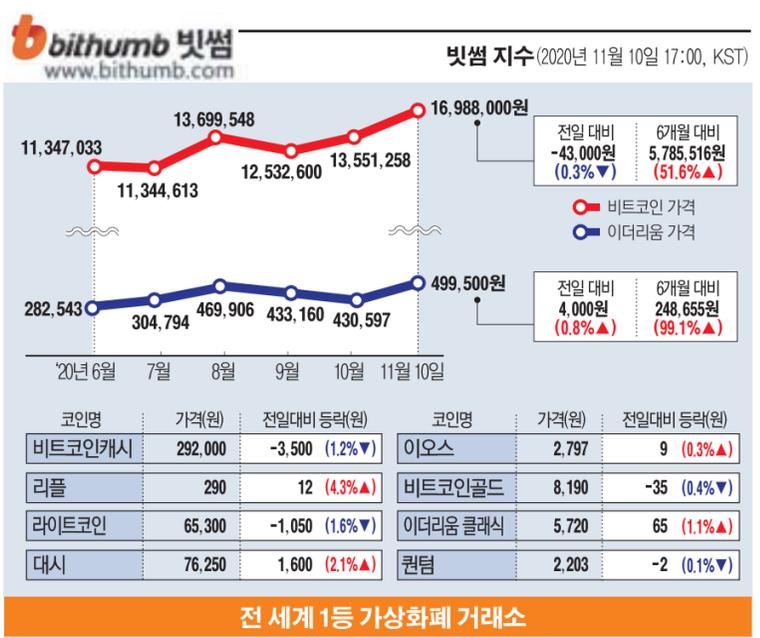
자본시장 “연말 개인 매도세, 전체 시장 영향은 미미”

“배당 노린 기관투자자 순매수 경향... 개미 매도 상쇄”

연말에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 팔곤 하지만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자본시장포커스에 실린 ‘연말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연말 순매도에 따른 전체 주식시장 영향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연말 보유 비중 또는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이다가올수록 개인투

자자의 수급 불균형이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도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월평균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과거 개인투자자는 12월이 되면 주식을 순매도하는 경향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관측됐고, 이러한 매도 중심의 수급 불균형은 최근 들어 더 강해졌다. 그러나 이는 연말 무렵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가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식을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개인의 순매도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연말 개별주식의 수익률은 개인투자자의 매도요인에도 일부 영향을 받지만, 이보다 더 특징적인 점은 배당수익률(기관투자자의 연말 투자수요)과 더욱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그는 “배당 투자수요가 높은 주식의 수익률은 같은 시점 시장수익률을 웃돈다”면서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연말 매수수요가 적은 그룹(가령, 배당수익률=0)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도요인에 따른 주가 하락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주식가격 결정에 있어 개인투자자보다는 실질적인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청약시장 양극화...과천엔 만점통장, 평택·영종은 미달

'10억 로또' 기대에 청약 광풍
서울 1순위 최고 경쟁률도 경신
양주 등은 규제·공급과잉 '악재'
3기 신도시 본격 진행 뎀 더 심화

청약시장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다. 한 쪽은 가점 만점짜리 청약통장이 등장할 만큼 시장이 들끓는 반면 다른 쪽에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할 만큼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3기 신도시 청약이 본격화하면 새 아파트 옥석가리기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과천 지정타에 만점통장...안정권도 70점대 = 10일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에서 가점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전용 84㎡형의 기타경기에서다. 과천에서 당첨자를 뽑는 당해지역의 평균 가점은 74.9였지만, 기타경기에서는 78.8점, 기타지역에서는 75.8점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단지 1순위 청약경쟁률 ※출처: 청약홈

지역	단지명	경쟁률
경기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535 : 1
경기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과천 르센도 데시앙	470 : 1
경기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어울림 라비엔오	416 : 1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405 : 1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537 : 1
경기 평택시 신촌지구	평택동문굿모닝힐 맘시티2차	0.56 : 1
경기 평택시 현덕면	이안 평택 안중역 아파트	0.27 : 1
인천 영종국제신도시	영종국제신도시 동원로얄듀크	0.31 : 1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0.16 : 1

이번 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르센도 데시앙' 역시 청약가점 벽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단지 청약에 움직인 수요는 특별공급을 합쳐 57만 명에 달했다.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나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를 더하면 최근 4개 단지에만 무려 71만 명의 청약자가 줄을 섰다.

서울 1순위 경쟁도 폭발적이다. 지난 8월 은평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340.3대 1)가 서울 1순위 최

고 경쟁률을 갈아치웠고, 두 달 만인 지난 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벽산빌라가 로주택정비사업 단지)이 평균 537.1대 1의 경쟁률로 또 한번 기록을 경신했다.

입지가 워낙 좋은 단지들인데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차익이 10억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광풍이 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광풍? 여기는 미달인데... "온도차 심화 될 것" =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든 분양 단

지가 청약자들이 복세통을 이루는 건 아니다. 청약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이와중에도 입주자를 채우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9월 경기 양주옥정신도시에서 나온 '양주 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1순위 경쟁률이 0.16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일반공급 물량이 1042가구였지만 1순위 청약자 수가 170명에 그쳤다. 총 청약자 수도 354명으로 전체 경쟁률은 0.34대 1였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청약 1순위에서 입

주자를 채우지 못한 단지는 △가평군 가평센터럴파크더스카이(청약률 0.13대 1) △인천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0.31대 1) △평택시 이안 평택 안중역(0.27대 1) △양주시 덕계역 금강펜테리움 센터럴파크(0.69대 1) △평택시 평택 동문굿모닝힐 맘시티2차(0.56대 1) 등이다.

부동산 규제도 악재다. 양주시는 지난 6월 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지만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 과천·하남·위례·광명시 등과 달리 양주시 등은 청약 조건과 대출 규제까지 까다로워지면 수요가 달라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급 과잉도 문제다. 평택시는 2017년 7734가구였던 입주 물량이 이듬해 9145가구로 늘었고, 지난해엔 1만6708가구로 급증했다.

앞으로 수도권 청약시장은 입지와 시세 차익에 따라 온도차가 극명해질 전망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청약이 본격화하면 파주 운정,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와 경기 외곽지역 분양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PART2. 알쏭달쏭 환경용어카카오로 보는 환경 이슈
PART3. 친환경 모담노드 재대로 해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인사이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의 미학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위한 경저가 보았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다산철 뉴딜 일자리 창출로 미래 양천구를 꿈꾼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취임

저게 7억 인구 중 저만의 유일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취미인 남자, 조동성 이사장의 브리핑타임

나조차도 감동 못할 기사, 그 누가 감동해주라?
이진우 작사가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거기가 도솔천

고수 열친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단박이나 편성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쯤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회장산도담펜션 대표 역시 심오한 고안해 보였다. 그러나 가이이 현선을 짓겠다고 기세를 몰았던 남편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그후엔 실의와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뭐야? 펜션 사업이 빅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가격'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8리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겹겹이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열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집 앞 화단을 단정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영사·영작 볼아보기
읽을 없는 거리의 화가, 박크시
'15의 원파리 그림이 걸려나간 사연'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이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 뼘
자투리 천도 송송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뼘' 커뮤니티.

경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부동산시장 과열〉
부산 넘어 울산도... '불장' 확산

울산 아파트값 올들어 5.55% 상승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창원도 경증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에 이어 최근 비규제지역인 울산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시중의 유동자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경남권의 '불장' (시장 과열)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이달 첫째 주까지 5.55% 올랐다. 전국에서 수도권(경기·인천)과 세종, 대전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울산 아파트값은 지난달부터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10월 첫째 주 0.22% 상승한 데 이어 둘째 주에는 0.26% 올라갔다. 셋째 주부터는 이달 첫째 주까지 3주 연속 0.27%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간 상승률이 0.2% 이상이면 '위험 단계', 0.3%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 2단지' 전용면적 84.94㎡형은 최근 11억 9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가인 9억6500만 원(9월 초)에서 2억2500만 원 치솟은 것이

울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 (단위: %, 전주 대비)

날짜	전세	매매
10월 5일	0.43	0.22
12월	0.46	0.26
19일	0.5	0.27
26일	0.51	0.27
11월 2일	0.6	0.27

※출처: 한국감정원

다. 바로 옆 '문수로2차 아이파크 1단지' 전용 84.94㎡형도 지난달 24일 10억6000만 원에 팔린 데 이어, 25일 12억 원에 매매되며 하루 만에 최고 거래가를 1억4000만 원 끌어올렸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울산의 주택 매매거래 1만8184건 중 약 20%(3622건)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치솟은 전세값도 울산 아파트값을 자극하고 있다. 울산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12.89% 솟구쳤다.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0.5%대에서 이달 0.6%로 확대됐다.

부산과 울산 외에도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등지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미사동일 넥서스' 지식산업센터 분양
우리자산신탁, 중도금 무이자 대출

우리자산신탁이 경기 하남시 덕평동에서 '미사동일 넥서스' 지식산업센터(조감도)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0층 높이의 '미사동일 넥서스'는 섹션오피스(다양한 규모로 업무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무실) 229실과 기숙사 129실, 근린생활시설 29실로 구성됐다. 섹션오피스엔 의료와 유통,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시행 위락은 동일코퍼레이션이, 시공은 중우건설이 맡았다. 분양가는 3.3㎡당 섹션오피스의 경우 약 600만 원, 기숙사는 900만

원대에 책정됐다.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은 각각 10%, 50%로 이자 없이 대출할 수 있다. 미사동일 넥서스는 천장 높이가 5m로 개방감을 느끼기 좋다.

견본주택은 하남시 덕평동에 마련돼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日기업 한국내 자산 현금화 속도

압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대전지법, 압류명령 결정문 보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해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 명령에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은 양금액(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압류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중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

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심문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해도 곧바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결정문의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다음 달 30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

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심문 없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서류들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는데, 압류 절차가 개시되자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한 바 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

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한편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 관련 한국 법원의 일본기업 자산 매각 절차 진행에 대해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용 기자 deep@

가장 오른쪽 차로 자전거 함께 이용 ‘지정차로제’ 운영 서울시 ‘보행안전개선 계획’

서울에 자전거 지정차로제가 운영된다. 지하철역 입구에 전용킵보드 거치대가 설치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PM(개인 이동수단)·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에게 안내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킵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전거 등록제와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방치 기기를 관리하고 공유 PM은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권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PM,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인프라와 제도를 만들면서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홍인석 기자 mystic@

라임·라움 핵심 인물, 협업 전부터 알던 사이

“2018년부터 투자 겹쳐” 허위

1조6000억 원대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라움) 핵심 인물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접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8월 김영홍 라움 부회장은 박성찬 라움 회장의 권유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김정수 전 라임 회장, 박모 전 라임 부회장 등을 만났다. 라움은 2018년부터 자산운용역 등 실무자들 선에서 라임과 협업해 왔으며 라임과 업무상 겹치는 투자가 많았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만난 시기는 라움과 라임이 함께 투자를 진행하기 약 1년 전이다. 당시 이들은 크레이플레닛(현 슈팩스비엔피) 경영권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이들의 만남은 크레이플레닛 최대주인 얼라이브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에 돈을 빌려준 박 회장의 채권 회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조합은 2017년 3월 크레이플레닛 최대주였던 퍼스트빌리지로부터 경영권 지분(10.41%)을 190억 원에 인수했다.

경영권 매입 자금은 상당 부분 빌린 돈이었다. 이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차입처는 리드의 자회사, 상상인 등으로 투자조합 경영진 개인 명의를 통해 투자됐다.

리드 측은 단순 재무적투자자(FI) 입장이었으나 투자조합이 크레이플레닛 경영권 인수 후 태도를 바꿔 경영권 개입을 요구했다. 투자조합은 크레이플레닛 경영권 인수 후 차입금 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박 회장으로부터 운영자금 30억 원을 빌렸다.

이후 투자조합은 양측에 경영권 매각 조건으로 차입금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회사 인수 의향이 없었던 라움은 2017년 8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라임 측과 접촉한다.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리드 경영진인 김 전 회장, 박 전 부회장은 투자조합 경영진에게 ‘경영권 이전의 대가로 박 회장으로부터 차용해 투자조합에 대여한 30



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

유통업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시작했다.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꾸며져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억 원과 1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기도 했다.

투자조합이 슈팩스비엔피를 인수한 후 라임은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30억 원 규모

CB를 투자하기도 했다. 이후 라움은 전환사채(CB) 등 메지닌 투자를 진행해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란 평가를 받았다.

박기영 기자 pgy@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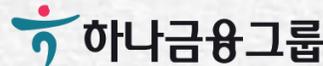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나남**
www.nanam.net nana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페플라стик 원단을 활용한 의류 집회 브랜드
뭉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 빈곤·불균형 문제 어젠다 세팅 주력”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선출된 서상목 한국외대

새로운 사회안전망 만들기...구체 사업은 유엔·WB 주도 비대면 회의로 더 활발한 논의, 내년 중 책으로 정리 계획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빈곤, 부의 불균형 문제를 주제로 비대면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 각국에 출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세계은행(WB), 유엔(UN) 같은 큰 국제 기구가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어젠다를 세팅하려고 한다.”

8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에 선출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ICSW는 1928년 레인 샌드(Rane Sand) 당시 국제적십자자연맹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국제단체다. 사회복지, 사회정의, 사회개발 관련 정책을 개발·제

안하는 기구로 유엔으로부터 자문지위(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상태다. 초기 44개국 대표로 설립됐으나, 현재는 65개국 109개 단체로 회원이 확대됐다.

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은 사회안전망 부재에 더해 경제 기반마저 무너지면서 빈곤 문제가 전보다 심각해졌고, 선진국은 아마존 같은 다국적 기업이 때돈을 벌어도 실업자가 넘치듯 부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회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논의가 전보다 활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에 선출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8일 열린 ICSW 총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 회장은 “회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항공료와 숙박료가 절감돼 예전 같으면 회의를 한 번 했을 걸 이제는 세 번도 할 수 있다”며 “내년 중에는 회의 결과를 책으로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사회개발·사회복지 관련 교육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우리 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ICSW 회원 규모와 참여도 측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그는 “어떻게 새로운 회원을 유치할지, 어떻게 기존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게 할지가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은 그간 ICSW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컨퍼런스 개최·참가 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과 몽골사회복지협의회 지원·협력, 아시아태평양푸드뱅크 컨퍼런스 개최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국제적 기여를 인정받아 회원들 다수의 지지로 당선됐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4년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윤홍근 BBQ회장, 빙상연맹 회장에



윤홍근(사진 가운데)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제33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윤 회장은 10일 서울 송파구 BBQ 본사에서 열린 ‘제33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철)는 “단독 출마자인 윤홍근 회장에 관한 임원 결격사유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회장 선거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빙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경쟁력과 경기력도 회복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 회장은 김상항 전 회장에 이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유정선 기자 dwt84@

한화, 점자달력 제작 20년 올해도 4만부 만들어 기증



한화그룹이 ‘2021년 한화 점자달력’ 4만 부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화 점자달력’은 2000년 도움을 호소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메일을 읽은 김승연 회장이 “시각장애인들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발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제작 20주년을 맞이한 한화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2000년 5000부 제작을 시작으로 발행 10년이 되던 2009년부터는 벽걸이형과 탁상형 두 가지 형태로 구분, 각각 2만5000부씩 제작해 무료로 제공했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호응이 높아 매년 부수가 확대돼 2021년 달력까지 포함하면 누적 발행 부수가 약 80만 부에 이른다. 이를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산 높이(8848m)보다 높다.

제작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시각장애인들의 실제 활용도를 반영해 탁상용 3만부, 벽걸이형 1만 부를 제작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반도건설 50년’ 권홍사 회장, 경영 일선서 물러나 “새 시대는 새 인물에게”...문화재단 통해 사회공헌 주력

창업 1세대로 1970년 주택사업으로 시작해 50년간 반도건설을 이끌어 온 권홍사 <사진>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전문경영인 체제의 조기 안착과 경영실적 호전에 따른 결정이다.

반도건설은 10일 권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임한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을 올해 시공능력평가 14위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시킨 권 회장은 전날 진행된 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사내행사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퇴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조직 개편 후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조직이 안착되고 경영실적도 호전됐다”며 “유능한 대표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이 퇴임을 결정한 배경에는 각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과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적 호전이 바탕이 됐다. 반도건설은 최근 고양 장항지구 LH 단일공급 최대 개발용지, 신경



주역세권 공공택지(2필지), 거제 옥포동 아파트 도급공사 수주,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친수공원 공사, 국군 시설공사, 아주대 기숙사 건립공사 등 주력인 주택사업 외 공공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퇴임 후 권 회장은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화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반도문화재단은 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시회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한 문화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우리은하대표·STEAM’ 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과 교원·일반인들의 과학 탐구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지난 1~3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지역 예선 대회에 5개 부문 2209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이 중 총 273점이 전국 본선 대회 작품으로 선정됐다.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회의를 통해 창의·탐구성, 이론적 타당성, 실용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 대통령상(2점), 국무총리상(2점), 최우수상(8점) 등 수상등급을 결정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학생부에서 대전 갑천중학교 ‘우리은하대표’ 팀(윤세현, 이우진, 전영서 학생)의 ‘위도에 따른 달의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학생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우리은하대표’ 팀(윤세현, 이우진, 전영서-대전갑천중학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도에 따른 달의 모양 변화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모양 변화·관찰자의 시선을 적용한 원리 이해 프로그램 개발’ 작품이, 교원·일반부에서는 ‘STEAM’ 팀(박은영 북내초등학교 교사, 양우철 나주중앙초등학교 교사)의 ‘SW 융합 산소 및 이산화탄소 기체 생성 및 반응 실험장치 개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학생부에서 강

근우 학생(여수중고등학교)의 ‘물땀땀의 맞춤형 생존전략과 로봇 적용에 대한 탐구’ 작품이, 교원·일반부에서는 ‘바우돌리노’팀(윤석민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재정 대전과학고등학교 교사)의 ‘가시광 통신 실험장치 개발 및 적용’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현대글로벌비스 럭비단, 한전 꺾고 2020 코리안 럭비 챔피언십 우승



현대글로벌비스 김요한(오른쪽) 선수가 10일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0 코리안 럭비 챔피언십’ 대회 결승전에서 한국전력 수비진을 제치고 킥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럭비단이 ‘2020 코리안 럭비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하며 창단 후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현대글로벌비스 럭비단은 10일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치열한 경기 끝에 34대 19로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2020 럭비 챔피언십은 국내 럭비단 4개 팀이 참가한 대한럭비협회 주관 토너먼트 대회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우승으로 2018년부터 매년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2020 코리안 럭비 챔피언십 우승은 현대글로벌비스 럭비단의 연구자인 인천에서 달성해 의미를 더했다.

럭비단 주장 이용승 선수는 우승 기념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한 코치진과 선수단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전, 최영호 상임감사위원 선임

한국전력은 9일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임감사위원으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상임감사위원은 광주 금호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제3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장충모 △경영 혁신본부장 이정관

◆한화그룹 ◇한화솔루션 △부사장 류성우 △전무 권기영 안인수 △상무 김문수 김성훈 심사성 임원배 장상무 정광교 △상무부 강운구 권영철 김창연 김현석 문성현 박재호 박종걸 안규찬 양상철 유동석 이상

신 이재빈 전창해 조경희 ◇한화에너지 △전무 김영욱 △상무 김익표 ◇한화종합화학 △부사장 이태길 △상무부 이근철 ◇한화토탈 △전무 김인환 박종태 장호식 △상무 윤해섭 △상무부 강정훈 김태희 문지환 조종환

◆KBS △성평등센터 성평등부장 김정은

◆부산문화방송 △기술국장 겸 기술정책부장 구기훈

부음

▲배상봉 씨 별세, 배종식·문식(유진기업 이사)·명식·해자·해남 씨 부친상, 김상재·변선규 씨 장인상 = 10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특실 302호, 발인 12일, 051-305-4000

▲진병연 씨 별세, 진대화(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부장) 씨 부친상, 염명철(자영업)·이석영(대신증권 잠실WM센터장)

·김선홍(명지전문대 교수) 씨 장인상 = 10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31-560-2430
▲강귀선 씨 별세, 김성수(다울주택 대표) 씨 장모상 = 9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10-2269-5579
▲이재경(전 기호일보 편집국 부국장) 씨 별세 = 9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602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32-460-3444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차기 미국 정부의 대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이에 가능했던 정상관계 중시로부터 오바마 정권과 같은 실무적 관계 중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대화의 초점이 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둘러싼 교섭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처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다. 바이든 정권은 어떤 대일 정책을 펼 것인가. 바이든 정권인수팀의 고관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주장을 폈는지를 보면 새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 대충 예측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사람이 미셸 플라노이다. 그는 여성이고 Barack Obama 전 정권에서 국방부 차관을 맡았다. 선거 때부터 바이든의 외교 고문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해 온 토니 블링켄도 백악관 보좌관 혹은 국무부 고위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블링켄은 오바마 정권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다. 그리고 오바마 시절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제이크 설리번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아시아 정책의 중심 인물이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명이 거론되는데 그 대부분은 오바마 정권의 고위 관료였던 사람들이다.

적지 않은 일본인은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가 안하무인의 행보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당선을 기뻐했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미·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금물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이든 정권의 대일 정책은 어떻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바이든 정권의 외교담당 예정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오바마 정부의 고위 인사였고 바이든 자신도 오바마 정부에서 외교를 잘하는 부통령이 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의 외교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바이든 정권의 구체적 대일 정책에는 플라노이 국방장관 후보자의 견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플라노이는 외교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막으려면'이라는 글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에 투자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영속적 존재를 강화해야 하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동맹국들과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

시해 새로운 능력정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동맹 재구축, 동맹 강화'가 민주당 진영의 키워드이자 대중국 정책의 열쇠다. 한국과 일본에 고액의 미군 주둔 경비를 요구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탈을 암시한 트럼프 대통령을 '동맹 경시'라고 바이든 진영은 계속 비판해 왔다. 지난 8월에 나온 민주당 강령 중에서도 동맹 강화가 명시됐다. 바이든 정권의 대아시아 전략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힘을 빌려 중국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데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군 주둔 경비 4~5배 증가라는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일본에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8월 민주당 강령에서 밝힌 것처럼 바이든은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과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동맹국들에 촉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일본에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정례화되었고 4개국 군사훈련이 현실화한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되풀이해 왔다.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목표로 조만간 '방위 계획 대강'이 개정될 예정인데 핵심은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전임자인 아베보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다.

종합적으로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의 대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이에 가능했던 정상관계 중시로부터 오바마 정권과 같은 실무적 관계 중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대화의 초점이 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둘러싼 교섭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실무자에 의한 교섭을 중시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 측 방위비 부담액수에 대해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처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자 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보험설계사와 병원, 소비자가 함께 짜고 보험사기로 8억5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비를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지급 받은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은 산부인과병원 관계자와 보험모집인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험사기가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809억 원, 가담 인원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9만2538명으로, 적발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누수가 생기고 민간보험사들도 손해율이 높아져 경영상황이 나빠지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거의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지난 5월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공·사보험 재정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은 연간 6조1513억 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평균 1가구당 30만 원, 1인당 약 12만 원의 보험금을 더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쯤 되면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데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그런데도 보험사기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는 허위입원 등을 통해 비급여를 보험사로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민영 보험사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도, 민영보험사와 건보공단 사이에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해 공·민영 보험 정보

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훨씬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지만 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을 규정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해 6조 원에 이르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질길 기대한다. 그래야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돼 선량한 다수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보험사기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 S. 패튼 명언

"나는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전투를 지휘한 미국의 육군 대장. 저돌적인 작전과 욕설을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는 적의 약점을 즉시 공략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적을 제압하는 기동전의 신봉자. 패나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는 아우토반을 달리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85~1945.

☆ 고사성어 /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가로막는다는 뜻.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을 비유한다. 원전은 한시외전(韓詩外傳). 제(齊)나라 장공(莊公)이 사냥터 가던 중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바퀴를 칠 듯이 덤벼들자 무슨 벌레냐고 물었다. "사마귀라는 벌레어웁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을 모르는 놈이었는데, 제 힘도 생각지 않고 강적에게 마구 덤벼드는 버릇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장공이 한 말. "저 벌레가 인간이라면 틀림없이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니, 수레를 돌려 피해 가도록 하라."

☆ 시사상식 / SNS 피로증후군

과도한 SNS 이용으로 생기는 피로감을 일컫는다. 과도한 정보 공유와 인맥 관리 분산으로 불안감, 자기 회의감, 우울감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 고운 우리말 / 너물가지

남과 잘 사귀는 솜씨. 불임성이나 포용성 따위를 이른다.

☆ 유머 / 헛 다짐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는가?" 주례는 큰 소리로 대답하라며 다짐을 받았다. 둘은 세 달 지나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고 이혼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저수첩

"아직 비교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쿠팡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희 점 유통과 균이..."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의 약진과 관련해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질문에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가 결코 후발주자에 대한 대응 차원은 아니라는 어조였다. 최대 경쟁자였던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한 자릿수임을 감안할 때 배민의 이런 입장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시장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

다. 독점적 시장 지위를 차지하면서 긴장감이 사라진 조직이 후퇴한 사례는 국내외 경영계에서 예시를 들 필요가 없을 만큼 익히 봐온 터이다.

쿠팡은 지난해 '쿠팡이츠'를 내놓으며 배민과 요기요가 과점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 서비스의 경쟁력은 간명하다. 정확하고 빠른 배송이다. 쿠팡은 '배달원

1인, 多배송'이 기본인 경쟁사와 달리 '배달원 1인, 1배송'이라는 기본에 충실해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배달비용이 부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지만 자본으로 무장한 쿠팡에 아직까진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쿠팡이츠는 출시 1년이 지나면서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

르면 국내 안드로이드 OS 기준 9월 쿠팡이츠 사용자 수는 92만381명으로 전월(74만8322명)보다 22.9% 증가했다. 전년 동기(18만6214명) 대비로는 5배가량 늘었다. 쿠팡이츠 사용자를 늘리는 1년 사이 배민은 9월 사용자 수가 전월보다 20만6958명, 요기요는 50만464명 각각 줄었다.

그간 후발주자로 진출한 시장마다 파괴에 가까운 혁신전략을 이끌며 '메기'라는 별명이 붙은 쿠팡의 진격은 배달앱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도전적 후발주자의 등장은 기존 사업자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 시장 경쟁과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이득은 '배달의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적어도 배달앱 시장에서만큼은 쿠팡의 약진을 응원한다.

쿠팡이츠의 약진이 기대되는 이유

안경무 유통바이오부/noglasses@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겨울이 오고 있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인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어려서부터 경제 개념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 시장', 주식 투자 역시 그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했으나 당황스럽다. 최근 증시에 대한 열풍이 중학교 1학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 약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 평생 성실히 일해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못할 거라는 푸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누구는 영끌 갭투자를 한다지만 상당수 빚을 낼 용기가 없는 서민들은 냉기습만 앓고 있다.

주식 시장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영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들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까지 바뀐 버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2021년부터 한 종목당 3억 원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8만 명 가량에 불과하다.

9983.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지표다. 전체 기업 수의 99%, 종사자의 83%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 9000원(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이다.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4000만 원이 안

데스크칼럼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된다. 월급쟁이들이 한 달에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받는 월급 중 무려 절반을 저축한다고 해도 1년에 기껏해야 2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3억 원을 만들려면 무려 15년 이상이 걸린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5억9815만 원) 대비 640만 원 오른 6억455만 원으로 조사됐다. 30년을 일하고 월급의 절반을 저축해도 아파트 하나 사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연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3억 원', '6억 원', '30년'. 모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월급의 절반을 매달 저축한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2020년 대한민국, 누군가는 한 종목당 3억 원이라는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생떼를 쓰는데, 누군가는 아기 기저귀를 사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651만 원을 낸다고 난리를 치지만 누군가는 생리대가 없어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 새벽 4시, 팔손은 되어 보이는 한 할아

버지가 박스 테이프를 뜯고 있다. 편의점 앞에선 두 어르신이 빈 병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말이 거칠어지기 일쑤다.

라이더유니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페이스북에서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라이더의 가족이 상당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위로를 건네기는커녕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느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이럴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일하다 다친 조합원이 휴업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웃으며 깃스를 한 채 일해야겠다고 말합니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어떠한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내고 홀로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임대료 내는 것조차 벅하다. 실제 성신여대 근처에서 15년 넘게 커피숍을 하던 A 씨는 비싼 임대료에 기존보다 절반 크기의 가게로 옮겨야만 했다. 지난달 11년 가까이 대방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70대 할아버지는 건물주의 느닷없는 통보에 자리를 비워야만 했다. "남은 쿠폰 있으니 다 쓰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이처럼 현실은 가혹한데 수익 원자산을 가진 이들은 세금을 못 내겠다고 몽니를 부린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다. 겨울이 오고 있다. TV홈쇼핑에선 이미 겨울옷과 난방 기기들이 넘쳐난다. "이런 겨울은 여느 때보다 더 춥다"는 설명과 함께. 그런데 이 세상이 날씨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 che@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좋은 의도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그렇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정책일수록 목적인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법이 기특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의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청년절망 3법'이 되고 말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논란이 되는 3개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을 종전 1년에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도록 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상시 업무에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노동경직성만 심화시키고 기업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의 여력을 쪼그라들게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경고했다.

우선 노조법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지만, 노조의 힘은 커지는 반면 사용자 측은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 또 퇴직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그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1년 이내 퇴직자의 60% 가까이 50년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보면 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된다. 상시업무에 도급·위

탁·파견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도 인건비를 크게 늘린다. 모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9월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5.4%로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졌다. 청년 네 사람 중 하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는 특히 청년층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주로 청년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에 피해가 집중된 까닭이다. 9월에만 청년 일자리가 21만8000개 줄었다.

청년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9월 조사에서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곳이 24.2%, "채용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다"가 50%에 이르렀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계속 후퇴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자리란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고용창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동안 수도 없이 강조됐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법을 만드는 데만 골몰한다. 청년들의 미래 또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구성현의 작자지결



자본시장부 차장

바이든 랠리를 이어가려면

화까지 시장에서 원하는 3박자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는 올 연말과 내년 초는 어느 때보다 증시 상승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증시는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3000 돌파 역시 아직까지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올해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린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급변한 상황에서 겹호재를 맞으며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지만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 큰 역할을 한 동학개미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한 방침을 강행하자 여론이 들끓었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정부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동학개미의 승리로 끝났다.

여론의 눈치를 보던 여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 사령탑인 부총리조차 납득시키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사표를 냈다 반려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앞서 9월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개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금융당국은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여당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책은 유연성은 물론 일관성도 중요하다. 매번 반발이 있다고 수정하고 물러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 역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당장 돈 몇 푼 아끼자고 정부 정책에 반발한다면 국내 증시를 믿고 투자할 외부 세력은 모두 떠나고 말 것이다. 이 경우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고 회사는 수혈받은 자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며 주주는 그 열매를 나눠먹게 된다. 질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현명한 투자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carlove@

세무, 특! '고령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올해 72세인 A 씨는 16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A 씨는 다음 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하다.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율을 높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20~4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까지 적용된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30%였으나,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공제율을 올해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했다.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만 60세(2020년 기준 1960년생)부터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부세액의 20%를,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받는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도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 나이에 따라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최대 50% 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합산

해서 최대 90%의 공제율이 나오지만 세법상 한도액인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연수에 따라 종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위 사례에 나오는 A 씨의 경우 고령자 공제율 40%에 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합산해 총 90%의 공제율이 나오지만 최대 공제한도를 적용해서 총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모든 60년생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출생일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세 시점에 따라 올해는 1960년 6월 1일생까지만 종부세 공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되며, 이후 태어난 사람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 달인 12월 15일 납기로 통지되는 종부세 과세 내역에서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윤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반가워요! 둘만의 새 출발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조금 서툴러도 걱정 마세요
복잡했던 세탁을 버튼 하나로
심플하게 끝내주는
그랑데시^{AI}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A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AI}



새로운 시작, 삼성 그랑데^{AI}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용량의류케어 톱큰혜택 2020.11.1 - 2020.11.30

삼성 그랑데^{AI}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및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동사구매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70만 상당 혜택)

* 20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드럼세탁기 품목 신고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그랑데^{AI})은 올인원 컨트를 모델에 한함 * 일부모델 제외 * 에어드레서 대용량 리얼블랙(DF10T9301KG) 삼성닷컴 혜택기준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상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가전을 나답게.